ISSN 1975-8022

大巡會報

84호
대순 138년 6月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는 음양합덕 · 신인조화 · 해원상생 ·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여 성 · 경 · 신의 삼범언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 · 안신 이율령으로 수행의 훈전을 삼아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 · 구제창생 · 보국안민 · 지상천국 건설을 이룩한다.



천지 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 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하나니 공명지 정대(孔明之正大)와 자방지 종용(子房之從容)을 본 받으라.(교법 3장 29절)



훈 회

一. 마음을 속이지 말라.

二. 언덕을 잘 가지라.

三. 척을 짓지 말라.

四.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五. 남을 잘 되게 하라.

수 칙

一. 국법을 준수하며 사회도덕을 준행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하여야 함.

二.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제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을 경례로써 섬기고, 수하를 애휼 지도하고, 친우간에 신의로써 할 것.

三.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니, 양심을 속임과 혹세무민하는 언행과 비리괴려를 엄금함.

四. 연동으로써 남의 척을 짓지말며, 후의로써 남의 호감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을 모름을 괘의치 말 것.

五.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목 차

04 도전님 훈시 — 신앙체계의 정립

08 종단소식
12 상제님의 발자취를 찾아서⑳ — 상제님의 주유천하 2
16 교리소개 — 마음을 속이지 말라

20 지남거(指南車) — 상제님께서 알려주신 척신과 魔가 풀리는 원리
32 『典經』 속 역사인물 — 공자(孔子)
40 도인탐방 — 서구방면 유영예 보정
48 인물소개 — 입춘(立春) 절후를 관장하는 위징(魏徵) 2
55 포토에세이
56 고사한마디 — 우맹의관(優孟衣冠)
58 금강산 이야기 — (36) 남효온(南孝溫)과 김시습(金時習)의 금강산 여행
62 Q&A 게시판
65 『典經』 용어 — 가긍(可矜) 외
68 『典經』 민속자료 — 가야금(伽倻琴)
70 온고지신(溫故知新) — 복(福) 받을 준비를 해야지

74 춘계대순한마당 사진전
78 수기 — 가화(家和)를 그리며… 외
84 독자사연
86 대순학생회 — 캠프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과 열정이 날아오르다
92 대학생코너 — '포스트모던과 신종교' 외
98 대만학술답사기 — 해외에서 선보인 우리 기도의식
106 다시 보는 우리문화 — 발효과학의 결정체, 김치

112 영화속으로 — 화려한 휴가
116 철학과의 만남 — 자유와 우연의 세계를 말하는 비결정론
118 이달의 책 — 앵무새 죽이기
120 알립니다

誠敬信



발자국을 따라가다 드디어 소의 뒷모습을 발견한 동자. 이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듯 수도의 어려움도 시작된다. 망망대해에 홀로 던져진 듯한 느낌이지만 동자는 결코 수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일에 뜻을 둔 자는 넘어오는 간남을 잘 삭혀 넘겨야 하리라.(교법 1장 3절)

大巡會報 대순회보 84호 대순 138년

발행 대순진리회 여주분부도장 편집·제작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출판부
주소 469-861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가하리 650-2 T. 031 882 3460 F. 031 882 3360
발행일자 2006년 6월 24일 홈페이지 www.daesoon.or.kr 미매품

I 신앙체계의 정립

제2장 진리에 의한 포덕 · 교화의 강화

1절 해원상생 대도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토록 하라.

(가) 포덕은 해원상생 · 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다. 〈80. 4. 1, 82. 11. 3〉
(나) 포덕은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로 이룩하는 것이다. 〈82. 11. 3〉
(다) 포덕은 덕을 편다는 말이니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82. 11. 3〉

2절 대순진리의 평화사상을 이해하라.

(가) 우리 대순진리의 인존사상이 바로 평화사상이다. 〈80. 9. 23〉
(나) 인류의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여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덕으로 믿고 고움이 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의 무한대한 진리에 있음을 이해하라. 〈80. 9. 23〉
(다) 가정화목 · 사회화합 · 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이다. 〈80. 9. 23〉

3절 상생의 원리로 포덕 · 교화하라.

(가) 해원상생 · 보은상생의 원리를 종교의 법리로 화민정세(化民靖世)하시어 인세(人世)에 낙원을 이룩한다 하심은 광구천하 · 광제창생의 대의(大義)이다. 〈83. 3. 22〉
(나) 포덕은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키 위한 대인접족이다. 〈84. 1. 1〉
(다)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어야 광제창생이 되는 것이다. 〈81. 1. 5, 82. 11. 3〉
(라)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83. 2. 15〉
(마) 포덕에서,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無量)하신 덕화와 무변(無邊)하신 권지의 소유주(所有主)이심을 널리 알려져야 한다. 〈81. 1. 5〉
(바) 교화는 입도한 도인에게 밝은 재활(再活)이 불역(不易)의 천운구인(天運救人)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자인 자각케 하는 것이다. 〈84. 1. 1〉
(사) 교화로써 도를 심심화(心深化)하고 수훈(垂訓)의 진법(眞法)을 행동 실천하여야 수도자의 입문이 될 것이다. 〈84. 1. 1〉

4절 덕화선양(德化宣揚)에 노력하라.

(가)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3. 2. 15〉

(나) 부당한 언사나 처사로 행동하여 덕화 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83. 1. 12〉

(다) 남의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포덕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81. 1. 5〉

(라) 우주대원(宇宙大元)의 진리가 도이며 도는 사람만이 깨달아 닦을 수 있으므로 도인으로서 본분에 알맞는 참된 말과 참된 행위를 준행하여야 한다. 〈84. 3. 11〉

(마) 도인은 도규(道規)를 잘 지켜야 참된 신앙자가 된다. 〈84. 3. 11〉

5절 조언비어(造言蜚語)를 일체 엄금하라.

(가) 말을 꾸며서 만들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80. 8. 17〉

(나) 참된 언표(言表)는 사이비(似而非) 종교라는 지탄을 받지 않는 것이니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80. 8. 17〉

(다) "있는 말로 일을 꾸미면 천하가 부수려 해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일을 꾸미면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나니라" 하셨으니 무자기(無自欺)를 뜻하심이다. 〈84. 3. 11〉

(라)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시국을 논하여 민심을 혼란케 한다면 도인의 본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83. 3. 22〉

(마) 도리(道理)에 위배되는 조언(造言)이 유포되어 도인의 본분을 상실하거나 덕화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82. 3. 22〉

(바) 도(道)는 영원한 진리이니, 도에서 시한부를 운운함은 있을 수가 없다. 〈82. 5. 22〉

포덕(布德)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 때에 맞게 뜻을 세워서 살아가고, 성장해 가면서 목적이 바뀌기도 하지만 역시 세워둔 목적을 향해 생활해 갑니다. 장성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도인들의 사업(事業)은 바로 포덕입니다. 포덕은 상제님의 덕화를 천하 만방에 널리 펼치는 일이며 포덕은 수도(修道)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도는 포덕에서 시작됩니다. 포덕을 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겪는 고통(苦痛)과 인내(忍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성(煉性)되는 것입니다. 주문만을 많이 읽고 마음만을 닦는다고 소원(所願)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포덕을 통해 나 자신이 연성되고 연질(煉質)이 되어야 운수를 받게 되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덕사업을 하는 사람을 도(道)에서 일꾼이라 합니다. 일꾼은 모름지기 부지런하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하며 고통을 끈기있게 참아 포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성공(成功)했다고 하며 이 성공은 포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이 천하포덕에 있으므로 수도(修道)도 포덕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수도는 상제님의 덕화를 천하만방(天下萬方) 곳곳에 널리 펼치는 것이며, 포덕하고자 하는 상대에게 상제님의 덕화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포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통일(精神統一)이 되어 영(靈)이 맑아져야 합니다. 자나 깨나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인의 포덕하는 정신입니다. 〈대순회보 45호〉

종단소식

수습대책위원회 회의내용

안건

- 교무부 차장 선임 : 금사1 방면 교감 김태윤
- 수습대책위원 충원
  - 이상철 선감 → 김대곤 선감, 고상규 선감 → 김완용 선감으로 교체
  - 신규 5명 충원 : 김영욱 선감, 금정임 선감, 이영도 선감, 이욱형 선감, 이주원 선감
- 도인 출입증 교체

공지사항

- 모내기 작업 : 5월 30일(목) 5시
- 사회복지법인 건물 건축 현장 작업 : 6월 1일 (오후), 2일
- 영대 앞마당 바닥 돌 작업 : 6월 3일(화)
- 운동장 스탠드 앞 조경용 돌 구입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 신청 마감 : 5월 31일(토)
- 『전경』 속에 나오는 민속자료 수집(교무부)
- 2008년 대순학생회 여름캠프 시작(기획부) : 7월 23일(수)

종무회의 내용

2008년 5월 28일

- 교무부 연구위원 채용(4명)



옥황상제님 봉천명(奉天命)치성 봉행
[6월 1일 새벽 1시(陰 4월 28일 丑時)]
수도인 7,000여 명 참석.

제20회 여주 도자기 축제 자원 봉사 활동



여주본부도장에서는 여주군에서 주최한 '제20회 여주 도자기 축제'의 자원봉사단에 주차 안내원 20명을 지원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수도인들은 축제기간(5월 7일~25일) 내내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방문객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축제를 찾은 여주군 내외의 많은 방문객으로부터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여주본부도장 모내기 행사



한 해 농사의 첫 손길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뜻을 살리기 위해 종단 상급임원 1,500여 명은 5월 30일에 모내기를 하였다. 이날 모내기는 종단에서 경작하는 논 6만 4천여 평 중에서 1만 6천여 평을 전통적인 손모심기 방법으로 작업했다.

상급임원 700여 명 '가야리노인복지시설'과 '대운동장 스탠드' 작업





옥황상제님 봉천명치성을 마친 상급임원 700여 명은 6월 1~ 2일 이틀 동안 가야리노인복지시설(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 현장과 여주본부도장 대운동장에서 작업을 했다. 500여 명의 임원들은 노인요양병원 철근 작업과 주간보호센터 내부 청소 및 자재 정리를 하였고, 200여 명의 임원들은 대운동장(여주본부도장) 스탠드 옹벽의 거푸집 및 철근 작업과 조경 공사를 했다. 작업에 참여한 임원들은 종단 3대 중요사업의 일환인 노인복지시설 현장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상제님께서 대순하신 해원상생의 진리를 되새겼다.



금강산 토성수련도장 「국토대청결운동」에 동참

6월 9일 고성군에서는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맞이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에서는 종사원과 수도인 40여 명이 참석하여 네츄럴론도(강원도 고성군 고성면 신평리 소재) 앞에서 용촌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변을 청소했다.

학교법인 소식

박철언(전 정무장관) 초청 통일대학원 특강



6월 2일 오전 10시 여주본부도장 통일대학원 강의실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미래한국의 청사진'이란 주제로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연구소장의 초청 특강이 있었다. 박철언 소장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발전해 가야할지에 대해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장차 남북한이 화해 · 공존 · 통일을 이루어 동북아 3국 연대의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반도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력 : 13~14대 국회의원, 10대 정무 제1장관, 건국대학교 언론홍보 대학원 석좌교수, 한반도복지통일연구소 이사장(현재)

대진대학교 전임총장 명예교수로 추대

5월 21일 대진대학교 정태수 전임총장과 흥기형 전임총장에 대한 명예교수 수여식이 있었다. 이번 두 전임총장에 대한 명예교수 수여식은 본교의 명예교수 규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두 전임총장은 본교의 공식적 의식 및 행사에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강의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대진대학교 정두근 6군단장 초청 특강 개최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회과학관 5층에서 정두근 6군단장을 초청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6군단에서 이천수 총장의 특강에 이은 것으로 지역 군부대와 대학 간 인적 · 물적 상호교류 증진의 일환이다.

대진대학교 학군단, '제2회 대진무제' 개최

대진대학교 학군단은 6월 23일 "제2회 대진무제"를 개최했다. '대진무제(大眞武祭)'는 학군사관 후보생들의 사기진작과 단결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 후보생들과 부모님, 내빈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학군사관 후보생들의 장기자랑, 그리고 모범 후보생에 대한 상장 수여식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소식

대진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강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한 대진요양보호사 교육원(일각문 맞은편 주차장 내 소재)은 6월 23일 요양보호사 1차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신청자는 약 220여 명으로 1~6차까지 각 40명의 정원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노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유연하게 이끌기 위한 요양보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케어, 윤리, 봉사 등을 포함한 요양의 기본원리와, 케어연수를 통한 전문 복지인의 자질을 갖추는 교육을 받게 된다.

상제님의 주유천하 2

(2)김일부와 만나심

글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담 이운규가 낙향하여 살았던 띠울마을 김일부가 살았던 당골과 이웃하고 있다. 이운규는 이곳에서 김일부를 제자로 삼아 가르쳤다.

김일부는 대략 20세쯤에 3세 연하인 민씨(閔氏)와 결혼하여 슬하에 1녀를 두었다. 그는 글공부에만 열중한 나머지 살림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으므로 이를 보다 못한 동생 김재훈(金在薰)이 집안을 대신 이끌었다.

그 무렵 당대의 석학(碩學) 연담(蓮潭) 이운규(李運圭, 1809~?)가 서울에서 낙향하여 김일부가 살던 당골 바로 옆 동네인 띠울마을[01]에 은거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본명이 수증(守曾)이었으나 대개는 운규로 불렸으며 세종대왕의 제18왕자인 담양군(潭陽君)의 13세손이라고 한다. 어려서 이서구(李書九, 1754~1825)에게서 학문을 배웠지만 정통 유학자라기보다는 이인(異人)의 풍모를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1861년 당시 36세였던 김일부는 이운규의 명성을 전해 듣고 그의 제자가 되어 학문에 더욱 열중했으며, 얼마 후에는 김일부의 딸과 스승 이운규의 아들 이복래(李復來)가 결혼을 하여 두 사람은 사돈 관계까지 맺게 되었다.

한편 일설에는 이운규가 김일부만이 아니라, 김광화(金光華 또는 金致寅), 최제우까지 제자로 길렀으며, 이들을 불러놓고 "최제우와 김광화는 선도와 불도를 대표하여 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였다 한다. 그러나 최제우는 이 때 경주 용담에서 상제님께 제세대도를 계시 받아 동학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김일부와 더불어 이운규에게서 학문을 닦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광화가 만든 '오방불교(五方佛教)'는 이운규의 가르침을

01 現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모촌1리. 띠가 많이 있어서 띠울이라고 불렸다. 당골에서 서북쪽으로 약 1.5㎞ 떨어진 곳에 있다.

근본으로 삼겠다고 한 종교이기 때문에 김광화가 이운규의 제자였을 가능성은 높다. 오방불교는 남학(南學)[02]의 한 계열로 분류되는데, 남학에는 이 외에 김일부의 '영가무도교(詠歌舞蹈教)'도 있었다. 김광화는 이운규의 아들들과 함께 전북에서 활동했으며 그 자신을 미륵불의 강림이라 자칭하여 많은 민중들을 끌어 모으기는 했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 때 5만 명에 달하는 남학군을 조직하여 남학운동을 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관군의 습격으로 괴멸되고 그 자신은 교수형에 처해져버렸으며, 그 후 오방불교의 교세는 극히 위축되어 현재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김광화가 불도를 대표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한 설은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참고로 영가무도교도 김일부가 죽은 후 김일부의 신격화 문제로 분열되어[03] 크게 세가 약해져 현재는 거의 멸실되었고, 학문적으로 정역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어쨌든 어느 날 이운규는 김일부를 불러 "그대는 쇠하여 가는 공자의 도를 이어 장차 크게 천시(天時)를 받들 것이니 이런 장할 데가 있나. 이제까지 '너'라 하고 '해라'고 했으나 이제부터는 '자네'라고 부르고 '하소'라고 할 터이니 그리 알고

02 우리나라에는 동학(東學), 서학(西學: 서양 학문 혹은 천주교), 남학, 북학(北學: 실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조선후기에 등장하고 있음은 지못 흥미로운 일이다.

예서(禮書)만 너무 볼 것이 아니라 『서전(書傳)』을 많이 읽으소. 그러면 후일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책을 한 권 짓게 될 것이니 그때 이 글 한 수만 넣어주소." 하면서 '觀淡莫如水(맑음을 보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고) 好德宜行仁(덕을 좋아하면 仁을 행함이 마땅하다) 影動天心月(달빛이 천심월에서 동하니) 勸君尋此訣(그대에게 권하노니 이 진리를 찾아보소)'라는 글을 전했다고 한다. 훗날 김일부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정역』을 저술할 때 「선후천주회도수(先后天周回度數)」편에 이 글귀를 넣었다.(계속)

03 1898년 김일부가 죽은 뒤, 제자 중 한 명인 하상역(河相易)이 김일부를 상제(上帝)로 신격화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자 이를 반대하는 다른 제자들이 '공맹의 도를 더 진전시킨 정역을 사도(邪道)로 타락시킨다'고 공박하여 내분이 일어났다.

마음을 속이지 말라

글 연구위원 주현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도 급변하는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다. 일하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조차 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고단한 삶 속에 묻어 버린다. 그러나 진정으로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과 자신의 마음자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올바른 마음과 행동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공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면 신뢰일 것이다. 신뢰란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먼저 그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그 속에서 진심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 1장 5절)고 말씀하셨다. 남을 믿지 않으면 나에 대한 신뢰도 생기지 않으며, 상제님을 믿지 않으면 상제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마음이 깨끗한 곳에 신뢰가 싹트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천은 정직(正直)이 만들어 주는 신뢰이다.

상제님께서는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라"(교법 2장 7절)고 말씀하셨다. 믿음과 정직이 하늘을 감동케 할 수 있다. 상제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과 복을 받기 원한다면, 믿음을 돈독히 하고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한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일신(一身)의 주(主)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사심(私心) 두 가지가 있는데,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本心), 즉 도심(道心)이며, 사심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물욕(物慾)에 의해서 발동하는 욕심을 말한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天性)을 되찾기에 전념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죄악(罪惡)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人性)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해야 한다.(『대순진리회요람』, 18-19쪽 참조)

우리 도(道)에서는 정직한 마음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흔히 속인다고 하면 남에게 허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체인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바로 무자기(無自欺)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자기(無自欺)는 곧 수도의 근본이자 목적이다. 수도(修道)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본성인 양심을 되찾으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수도를 중단하거나 게을리 하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심(私心)이 개입되어 마음을 속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오를 경계하기 위하여 옛부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欺

自棄)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心欺神棄)"라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어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순지침』, 42쪽 참조) 인간이 인간을 속일 수는 있지만 신명(神明)까지는 속일 수 없다. 신명은 인간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한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다. 거짓된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고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된다. 상제님께서는 "만물이 가을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예시 30절)라고 하셨다. 영원한 생명과 복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 말씀을 명심하여 수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남을 잘 되게 하려는 이타심(利他心)의 실천이다. 이것은 지극한 도심(道心)과도 통한다. 도심은 오직 공(公)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사(私)는 인심(人心)이요 공(公)은 도심(道心)이기 때문에, 도심이 지극하면 사심(私心)은 일어나지 못한다.(『대순지침』, 93쪽 참조) 사심이 없다는 것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 자신의 이득이나 편이함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하는 의도가 없다면 남을 속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만의 이득을 위한 행위는 곧 남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소홀하고 상하(上下)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며,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그 행위가 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도덕적 · 신앙적 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양심이란 자기 한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양심은 곧 남을 잘 되게 배려하는 이타심(利他心)인 것이다.

마음을 속이지 않으려면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상제님께서는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권지 1장 19절)고 하셨다. 남이 볼 때는 진리를 따르는 듯이 행동하지만, 남이 없으면 양심을 버리고 사욕에 가득 차 진리를 버리는 이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이 보든 보지 않던, 남이 알든 모르던 한결같이 진리에 따라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남이 마음을 속이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나도 남을 속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인륜(人倫)을 밝혀나가려는 수도인이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 자신만큼은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고, 내 마음을 밝히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행위이다.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면 한때 호의호식하며 잘사는 듯이 보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한순간에 덕과 명성을 잃고 평생 불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항상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여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지켜 나가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또 그 진실이 밝혀지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다. 수도(修道)는 재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욕을 버리고 양심을 지킴으로써 항상 마음을 평온하게 하려는 마음공부이다. 이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수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다.

상제님께서 알려주신

척신과 魔가 풀리는 원리

글 **민원실**

Ⅰ. 들어가는 말

대순진리회의 도(道)는 신도(神道)이다. 신도(神道)란 상제님의 상생대도(相生大道)를 뜻한다. 그러므로 '신도를 닦는다'는 말은 인도(人道)를 바르게 세우고 상제님의 진리를 힘써 닦아나간다는 것이요 그 결과 신명의 호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신도(神道)란 상생대도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신도로부터 원을 푸는 것'(공사 1절 3장)을 '신의 원을 풀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제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순회보』 81호 「신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실려 있듯이, '신도로부터 원(冤)을 푼다'거나 '신도를 풀어 조화한다'(예시 9절)는 말은 상제님의 상생대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천지공사로 인해서 비로소 삼라만상의 모든 원이 풀리게 되고 세상이 조화(調和)를 이룩하게 된다는 뜻이다.

실로 신을 본다거나 신을 느낀다거나 신을 떼어낸다거나 신을 물리친다거나 신을 해원(解冤)시킨다거나 하는 것을 신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상제님께서 "술수를 거두리라."(예시 76절)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을 보거나 하는 등의 신적(神的)인 행위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거나 혹은 허령(虛靈)에 빠진 광증(狂症) 현상일 뿐, 인도(人道)를 바르게 세우고 상제님의 진리를 힘써 닦아나가는 대순진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로 할 수도 없는 일이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에게 신을 붙여주면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는 신(척신이나 魔)을 보게 되고, 그 척신이나 魔를 떼어다가 교화를 하면 그것들이 해원(解冤)을 하여 신선 · 선녀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이런 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제명된 사례가 있었다. 신을 붙여주고, 신을 보고, 신을 떼고 신을 해원시키는 행위는 이미 허령에 빠져 난법난도(亂法亂道)를 저지르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도인들에게 붙어있는 신, 즉 척신 · 魔에게 교화를 함으로써 그 척신 · 魔들의 원(冤)을 풀어주고 그 결과 척신 · 魔들을 신선 · 선녀로 바꾸는 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데, 이 글에서는 왜 그러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일단 척과 魔가 연급되어 있는 『전경』 18곳[01], 『대순지침』 6곳[02], 그 외 도전님 훈시를 바탕으로 해서, 즉 상제님과 도전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수도를 잘못하여 극단적인 벌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의 정서상 맞지 않는 일이기는 하나, '善者師之 惡者改之(좋은 것은 스승으로 삼고 나쁜 것도 고쳐서 배운다. 행록 3장 44절)'라는 상제님의 말씀도 있듯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잘못되었는지를 배워 교훈으로 삼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01 행록3-16, 행록4-47, 행록4-54, 행록5-38, 공사2-3, 공사3-39, 교운1-2, 교운1-30, 교운2-42, 교법1-9, 교법2-14, 교법2-15, 교법2-44, 교법2-46, 교법3-4, 교법3-12, 예시17, 예시58

02 『대순지침』 27쪽, 43쪽, 94쪽

2. 척신과 魔란 무엇인가?

상제님과 도전님께서는 척(慽)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다.

【교법2~44】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교법2~46】 이웃 사람이 주는 맛없는 음식을 먹고 혹 병이 생겼을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나니라.

【『대순지침』 27쪽】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 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 〈83. 5. 5〉

【『대순진리회 요람』 19쪽】 척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인즉,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 양순(良順) 겸손(謙遜) 사양(辭讓)의 덕으로써 남을 대할 때에 척을 짓지 않도록 하라.

이에 따르면 척(慽)은 남이 나에게 갖는 서운한 마음이나 원한(怨恨)을 뜻하고, 억울한 원한을 짓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호의를 거스르고 정을 끊거나, 남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하는 등,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발생한다. 이외에 척은 집안으로부터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다. 척을 가지고 있는 신이 곧 척신(慽神)이며, 척신은 내가 지은 죄과 혹은 집안의 업보로 인해 발동하는 마(魔)의 한 형태임에 분명하다.[03]

魔에는 업보로서 나타나는 척신뿐만 아니라, 호사다마(好事多魔) 즉 좋은 일에는 魔가 많이 따른다는 옛말에 나오듯 잘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발동하는 마귀와 같은 존재도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는 서가여래의 깨달음을 막기 위해 나타났던 파순(波旬)을 들 수 있다. 파순은 서가여래의 척에 따른 업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 잘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발동했던 魔였다.

이상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마(魔)	척신(慽神)	내가 지은 잘못(척)으로 인해 나타남
		집안에서 내려온 척으로 인해 나타남
	파순과 같은 마귀	내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남

3. 척신과 魔는 어떻게 풀리는가?

척(慽)은 원(冤)의 일종[04]이므로 척이 풀린다는 것은 곧 그에 해당하는 원이 풀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명된 사람의 주장대로 내가 지은 척 혹은 집안의 척으로 인해 나타나는 척신에게 교화를 함으로써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말만 가지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척, 즉 원(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우선 다음의 『전경』 내용을 살펴보자.

03 자세한 내용은 『대순회보』 82호의 「복마(伏魔) 그리고 해마(解魔)」를 참조하기 바람.

04 박용철, 「전경에 나타난 원의 본질과 구조」, 『대순사상논총』 제1집, 대순사상학술원, 1996, 389~391쪽.

【행록4-54】 상제께서 하루는 경석에게 검은 색 두루마기 한 벌을 가져오라 하시고 내의를 다 벗고 두루마기만 입으신 후에 긴 수건으로 허리를 매고 여러 사람에게 "일본 사람과 같으냐?"고 물으시니 모두 대하여 말하기를 "일본 사람과 꼭 같사옵나이다." 하노라. 상제께서 그 의복을 다시 벗고 "내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 아이와 먹으로 장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그 서당에 오지 않고 다른 서당에 가서 글을 읽다가 얼마 후 병들어 죽었도다.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을 구함으로 그럼 어찌 하여야 하겠느냐 물은 즉 그 신명이 나에게 왜복을 입으라 하므로 내가 그 신명을 위로 하고자 입은 것이니라."고 이르셨도다.

상제님께 원한을 품었으니 그 신은 척신이다. 여기에서 상제님께서는 그 척신의 원(冤)을 풀어내실 때, '왜복을 입으시라'는 척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심을 주목해야 한다. 해원(解冤), 즉 원을 푸는 것에는 부정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방법이 있다. 부정적인 해원 방법은 자신이 지닌 원을 복수를 통해서 푸는 것이요, 긍정적인 해원 방법은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교법 1장 56절)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원을 정화(淨化)하여 상생(相生)의 길로 승화시켜 풀어내는 것이다.

척신이 교화 · 감화가 되는 존재라면, 척신은 가르침을 받아 긍정적 해원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제님께 왜복을 입으실 것을 요구하는 척신의 해원 방법은 분명 부정적이다. 상제님께서는 삼계를 개벽시키는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척신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원을 하는 것을 그냥 두셨다는 것은 척신이 교화에 의해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음의 사례를 보자.

【행록4-47】 이후에 백암리에서 상제를 박공우와 신원일이 모시고 있었도다. 이때 종도 김경학의 천거로 김영학이 상제를 배알하였을 뿐 상제께서 이레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도다. 영학이 매우 불만을 품기에 공우와 원일이 그에게 "그대가 상제께 삼가 사사하기를 청하면 빨리 가르쳐 주시리라."고 일러주니 그때야 그는 사사하기를 청하니 상제로부터 승락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상제께서 갑자기 그를 꾸중하시는 도다. 영학은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문밖으로 나가니라. 상제께서 영학을 불러들여 "너를 꾸짖는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쳐 내려하는 것이니 과히 불만을 사지 말라."고 타이르셨도다. 영학이 "무슨 척이니까. 깨닫지 못하겠나이다."고 되물은 즉 "너는 열여덟 살 때 살인하고 금년에 또 살인하였나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회상을 촉구하시니 그는 옛일을 더듬었도다. "그 나이 때에 제가 남원에서 전주 아전과 말다툼하다가 그의 무례한 말에 분격하여 그에게 화로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는데 이것으로써 신음하다가 그 이듬해 삼월에 죽었도다. 또 금년 봄에 장성 다동에서 사는 외숙인 김요선이 의병으로부터 약탈을 당하여 의병대장 김영백을 장성 백양사로 찾아가서 그 비행을 꾸짖으니 그 대장은 외숙에게 사과하고 그 의병을 찾아 총살하였도다."고 영학이 이 두 가지 일을 아뢰었도다.

상제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을 따른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그동안 지내오던 허물을 낱낱이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고 또 반드시 그의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겁액을 풀어주셨다.(교운 1장 2절) 김영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제님께서는 꾸짖음을 통해 척신을 물리쳐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꾸짖음의 대상이 '척신이 아니라 김영학 본인'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상제님의 권능으로 척신을 불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김영학의 척신을 불러내어 그 척신을 꾸짖으셨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김영학을 꾸짖으셨다. 이러하였기에 김영학은

두렵고 분함을 느끼는 괴로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김영학에게 붙어있던 척신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영학 척신의 경우도 해원 방법은 역시 부정적이다.

척신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차원으로 발동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괴로움을 겪도록 요구한다.

【공사2-4】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 …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일본은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을 품고 있었으나 조선 침탈을 통해 그들의 척을 풀 수 있었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국권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고서야 척이 풀릴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척신 역시 부정적인 해원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경』에는 모두 척신이 부정적 방법으로 해원을 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을 뿐,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원을 하는 존재임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여기에서 잠깐 원(冤)에 대해 살펴보자. 상제님께서는 온 우주가 진멸의 지경에 빠져버린 이유가 천지인 삼계에 가득 찬 원 때문임을 간파하셨으나, 이를 교화로써 풀어내시지는 않으셨다. 다만 상제님께서는 해원시대를 여시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한바탕 각자의 원을 푸는 '해원판'을 벌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서 원은 단순히 위로나 설득, 감화 등의 방편으로는 풀려나갈 수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원은 '실제적인 보상이나 대우'가 있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척신도 교화로써, 구슬림으로써 척(원)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가 괴로움을 겪을 때 즉 복수를 통해서 그들의 척을 푼다. 이것이 척신이 그들의 척(원)을 푸는 원리이다. 따라서 나 자신의 입장에서 척신을 풀려 한다면, 오는 괴로움을 받아서 직접 겪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단순히 견뎌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남 잘되는 공부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척이 풀리고 결국 해원상생이 이룩된다는 것은 다음 박공우의 예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교법3-12】 상제께서 천원 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 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쾌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내 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으리라." 공우가 크게 감복하여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후일에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라. 수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열두 고을 목사가 모여서 대 전도회를 연다는 말이 들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열 두 고을 목사가 움직였노라」 하시니라. 그 후에 상처가 완전히 나았도다.

사실 이와 같은 척신이 풀리는 원리는 도전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바 있으니, 다

음의 훈시를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1991년 5월 14일 도전님 훈시】 도인은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이 몸에 배이고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해원상생이며 여기에서 척이 사라진다.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그것은 전생에 내가 남을 때려서 척이 생겼는데, 그 척이 지금 그 사람에게 의지해서 나를 때리므로 풀리는 것이다. 도적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면 괘씸하겠지만 전생에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었는데 그 척신이 그 사람에게 의지하여 복수함으로써 풀리는 것이니,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받으면 풀린다. 상제님께서도 어렸을 적에 글방 다니는 친구가 척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죽어 일본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였기에 척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일본 옷을 입으신 것이다. 우리는 척이 남으면 안 된다. 척은 다 풀어야 한다.

수도과정에는 척신뿐 아니라 파순과 같은 사악한 魔도 역시 발동한다. 이 魔는 아직 도통을 받지 못한 수도인들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존재로, 오직 상제님의 덕화와 신명의 조화가 있지 않으면 물리칠 방법이 없다.

【1991년 5월 14일 도전님 훈시】 삼계해마 대제신위 원진천존 관성제군(三界解魔大帝神位願趁天尊關聖帝君)이라고 하였다. 삼계의 魔를 풀어주는 것이 관성제군이다.

도전님의 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님의 명을 받아 魔를 풀어내는 신명은 해마주(解魔呪)에 나오는 관성제군이다.

【1994년 7월 11일 도전님 훈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밖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 속담에 남에게 욕을 많이 얻어 먹어야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화를 겪어야 한다. 삼계복마 대제신위 원진천존 관성제군이니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魔를 관성제군께서 풀어주신다. 남에게 나쁜 구설을 받아서 들어오는 魔도 관성제군께서 늘 막고 물리치신다.

이와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화(禍)를 겪어야 하고, 그런 연후 관성제군께서 그 魔를 풀어주신다. 따라서 魔가 풀리는 원리는 간단하다. 발동하는 魔를 참고 견디고 있으면 관성제군께서 그 魔를 풀어주신다는 것이다. 단, 관성제군의 음호(陰護)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법(眞法)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수도인이 제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직 도통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어떤 교화나 회유를 한다 하더라도 魔를 풀어낼 재간은 없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계시는 분이 바로 관성제군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은 수도인들의 수도생활에서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대에서 치성을 모실 때 관성제군이 원위(元位) 다음으로 술잔을 받으며, 해마주 외에도 진법주, 운장주에 걸쳐 무려 세 차례나 주문에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척신을 포함하여 '魔'라고 하는 존재는 교화 · 감화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화를 한다고 해서 魔가 해원을 하는 법도, 魔가 풀리는 법도 있을 수 없다. 즉 척신 · 魔 같은 신은 오직 '고통을 받아 겪으면서 해원상생을 실천할 때'라야 그 원이 풀리게 되고 또한 신명의 도움으로 물리쳐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인에게 붙어있는 신(척신 惑魔)에게 교화를 함으로써 그 신들의 원(冤)을 풀어주고 그

결과 신들을 신선 · 선녀로 바꾼다는 주장은 허황하기 이를 데 없다 하겠다.

상제님께서도 하신 적이 없고 또한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순진리가 아닌 난법난도(亂法亂道)에 해당하고, 결국 허령(虛靈)에 빠져 허황된 짓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은 허령이 단지 '눈의 검은 눈동자가 없어지고 하얗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태' 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도전님께서는

【『대순지침』 40쪽】

(다) 삿된 방법을 감행하는 것은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기(正氣)는 물러가고 사기(邪氣)가 선동하여 허령(虛靈)이 되는 것이다. 〈84. 3.11〉

(라) 허령은 사람이 보기에 곧 광증(狂症)이므로 "허가 내리면 진을 받지 못한다" 하셨으니 매사를 경홀히 생각 말고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야 한다. 〈84. 3.11〉

라 하셨으니, '삿된 방법'을 감행함으로써 타인에게 광증(狂症)으로 보이게 되면 그것이 모두 허령인 것이다. 도주님께서 50년 공부 종필로써 도전님께 전해진 진법(眞法)은 그대로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진법을 통해서만이 수도가 이루어지고 도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뒤늦게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혹은 도주님이나 도전님께서 따로 알려주신 비법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행위를 벌인다면 그것이 곧 삿된 방법을 감행하는 것이다. 50년 공부 종필의 법으로 전해진 진법, 이외에는 그 어떠한 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난법난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신도(神道)'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각의 교화가 어떻게 후각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선각의 지극한 교화와 정성이 있다면 후각이 마음을 열고 잘못된 마음을 바꿔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도는 신도(神道)이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 드나드는 신명으로 인해 체질과 성격이 바뀌게 된다.(교법 3장 4절)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어 그 결과 도가 닦여지고 덕을 많이 베풀어 기국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신명의 호위를 받게 된다.(교법 2장 17절)

이와 같이 선각의 교화는 후각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르게 바꾸도록 도와주고, 후각은 직접 해원상생의 실천을 통하여 수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척 · 魔가 발동하더라도 기본 마음으로 스스로 받아서 겪어나갈 수 있게 되어 척은 풀리게 되고, 또한 이런 과정을 지켜 본 신명은 魔를 물리쳐주는 것이다. 이것이 선각이 후각에게 교화를 하게 되면 척 · 魔가 풀리고 물리쳐지게 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각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후각을 이끌어주는 것이지, 선각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후각의 척과 魔가 풀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재차 이 글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척신 · 魔의 발동을 직접 온 몸과 마음으로 다 받아 겪으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남 잘되게 하는 상제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원이며 척 · 魔는 바로 여기에서 풀려나가고 사라지게 된다. 또한 선각은 후각이 바른 마음을 먹도록 인도해 줄 뿐, 마음을 직접 바꾸어주거나 기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명심해야 한다.

공자(孔子)

글 **교무부**



공자(孔子)

어느날 상제께서 형렬에게 대학에 있는 우경 一장을 외워주시니 그 글은 다음과 같도다.
蓋孔子之言而曾子述之 其餘十章 則曾子之意而門人記之也 舊傳 頗有錯簡 今因程子所定而更考經文 別有序次如左(교운 1장 56절)



공자묘
중국 산동(山東) 곡부(曲阜)소재

공자(孔子: BC 551~BC 479)[01]는 노나라 창평향 추읍(지금의 산동성 곡부시 동남쪽)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은(殷)왕조의 후손으로, 송나라 사마[司馬: 주나라 때 벼슬로 군정(軍政)을 맡아봄]였던 공보가(孔父嘉: 공자의 6대 조상)는 화독(華督)에게 살해되고, 그의 후손인 공방숙(孔防叔: 공자의 3대 조상)은 화씨의 핍박에 노나라로 도망가서 방대부(防大夫)로 있었다. 공방숙은 백하(伯夏)를 낳았고, 백하는 숙량흘을 낳았다. 숙량흘은 말년에 처녀 안징재(顔徵在)와 결혼하여 공자를 낳았는데, 니구산(尼丘山)에서 기도를 드려 태어났다 해서 공자의 이름을 구(丘)라 짓고, 자를 중니(仲尼)라 하였다. 숙량흘은 대부(大夫)란 칭호를 갖고 있었지만 생활은 평범하였다. 공자가 세 살 되던 해 아버지가 죽자, 평민 신분으로 몰락하면서 어머니는 공자와 같이 현재 공자의 공묘(孔廟)가 있는 곡부성 안의 궐리(闕里)로 갔다.

당시 춘추시대(BC 770년~BC 476년)는 주(周) 왕조가 분봉(分封)제도를 실시하여 각 제후들에게 일정한 땅을 나눠줘 다스리게 하였다. 주(周) 초기 주공[周公: 성은 희(姬), 이름은 단(旦)]은 무왕(武王)의 친동생으로 정치 ·

01 이글은 천웨이핑 저, 신창호 옮김, 『공자평전』, 미다북스, 2002. 채인후 저, 천병돈 옮김, 『공자의 철학』, 예문서원, 2000. 『사기』, 『공자세가』, 『논어』, 『춘추좌전』, 『예기』 등을 참고하여 서술한 것이다.

02 유가의 9경 · 12경 · 13경에 속하는 고대의 예법에 관한 3권의 책 가운데 하나. 예부터 주공(周公 : BC 12세기)의 저술로 간주되어왔으나 현대 학자들은 이 책이 BC 300년경에 무명의 이상주의자가 취찬(彙纂)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주례」는 천관(天官)에서 통치 일반을, 지관(地官)에서 교육을, 춘관(春官)에서 사회적 · 종교적 제도를, 하관(夏官)에서 군사를, 추관(秋官)에서 법무를, 동관(冬官)에서 인구 · 영토 · 농업을 다루었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

군사 · 역사 · 문화에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에 전장(典章)제도와 예악(禮樂) 등 주 왕조의 기초를 만들었다.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백금(伯禽)은 노나라를 다스리면서 「주례(周禮)」[02]의 규정을 엄격히 하고, 원래의 풍속과 예악을 개혁하여 주례의 문화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켰다. 그러나 공자가 태어나기 전 이미 토지 사유의 합법화와 노나라 대부 삼환(三桓: 孟孫氏, 叔孫氏, 季孫氏)이 노나라 군대를 삼군으로 편성[03]하고 있었기에 군주의 권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궁정 악사들도 흩어지면서 주례를 대표하는 문화 전통이 노나라에서도 몰락하고 있었다.

공자는 어릴 때 일반 아이들과 달리 제기를 진열해놓고 제(祭)를 지내는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가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귀족의 정치 규범과 주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그리하여 공자는 『논어』「위정」편에 "내 나이 15세,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하였듯이 이때부터 자신의 기량 쌓기와 주례의 문화 전통을 학습하기 시작하였다. 공자가 17세 되던 해,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당시 노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계손씨(季孫氏)가 명사들을 초청하였다. 이에 공자는 상복을 입은 채로 갔으나, 그의 가신인 양호(陽虎)가 공자의 형색(形色)을 보고 문전박대를 하였다. 이후로 공자는 공부에만 매진하게 되었다.

공자는 배움에 있어서 일정한 스승이 없었고, 기회만 있으면 주공의 태묘(太廟)를 찾아 제사 의식에 대해 꼼꼼히 묻기도 하였으며, 가야금을 배움에 있어서도 곡조만 배우지 않고, 작자의 풍모(風貌)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였다. 그리고 몇 년을 공부에 열중하여 20세경에 '육예(六藝)'[04]에 정통하면서 그의 명성은 밖으로 전해졌다. 공자는 19세에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축하로 노나라 소공(昭公)이 보내준 잉어 한 마리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리(鯉)라 지었고, 생계를 위해 하급 관직인 승전(乘田: 가축 관리)과 위리(委吏: 창고의 물품과 장부를 관리)에 있으면서 책임을 다 하였다.

30세경에 공자는 '육예(六藝)'에 초월하고, '육경(六經: 『詩經』, 『書經』, 『禮記』, 『樂經』, 『易經』, 『春秋』)'에 관통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에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에 공자는 자신의 집 앞뜰에 강단을 세워 주변에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고, 이때부터 행단강학(杏壇講學)을 시작하였다. 『논어』「위정」편에서 공자는 정치에 대해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효(孝)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는 것이다. 정치는 이러한 이치를 응용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어찌 반드시 관리 노릇을 해야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교육을 정치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여겼다.

공자의 교육 목표는 수세기 동안 정치 안정과 사회질서에 기여해 온 주례의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일으켜 바르지 못한 전통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는 최초로 강학을 시작해, 귀족관료들이 독점했던 교육을 신분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학(私學)의 기풍을 만들어 원래의 전통을 깨뜨렸다. 공자의 교육은 몇 년도 안 되어 성황을 이루어 귀족들은 물론 나라 밖에서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공자는 학문, 인격 모든 면에서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음으로써 많은 제자들이 모여 들었다. 이들이 공자의

03 「周禮」에 의하면 천하의 토지는 주나라 천자의 것이었고, 삼군의 편성은 군신등급의 명분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04 중국 주대(周代)에 행해지던 교육과목. 예(禮) · 악(樂) · 사(射) · 어(御) · 서(書) · 수(數) 등 6종류의 기술이다. 예는 예용(禮容: 예절의 바른 태도), 악은 음악, 사는 활쏘기, 어(御)는 말타기, 서는 서예, 수는 수학(數學)이다. 육예는 육경(六經)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상을 전수받아 전파함으로써 훗날 유가학파(儒家學派)가 형성되었다.

한편 공자는 노나라에 주나라의 문화전통을 부흥시키려고 정치 참여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하고 있었던 노나라 소공이 삼환과의 충돌로 제나라로 쫓겨나고, 계손씨의 후손인 계평자(季平子)가 정권을 잡자,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자신의 이상을 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공자는 주나라의 문화전통을 간소화하여 그것을 준수하고 있었던 제(齊)나라를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으로 생각하고, 제나라 경공(景公)의 대신인 고소자(高昭子)의 가신(家臣)이 되었다. 여기 있으면서 소악(韶樂: 순임금의 음악)을 듣고 3개월간 고기 맛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음악에 감동하기도 하였다.

『논어』「안연」편에 한번은 제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경공은 당시 노나라와 제나라의 신하가 신하답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에 크게 찬동하였고, 공자의 조언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나라의 집정대신인 안영(晏嬰)의 반대로 경공은 공자를 임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37세에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와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다시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공자는 주대와 같은 이상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예기』「악기」편에서 "악(樂)은 호오(好惡)를 같이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禮)는 귀천(貴賤)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호오가 같을 때는 서로 친하고 귀천의 구별이 있을 때는 서로 공경한다. …(중략) 예의(禮義)가 확립되면 귀천의 등급이 존재하고 악문(樂文)이 같을 때는 상하가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였듯이, 예악(禮樂)의 본질을 바로 잡아 등급의 차별과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화합시켜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는 현실사회에서는 불가능했기에 『논어』「팔일」편에서 공자는 "사람이 인(仁)하지 않으면 예의가 바른들 무엇하며, 악(樂)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듯이, 인(仁)[05]을 바탕으로 하여 예악의 본질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인은 그 역할을 하였으나, 격변하는 사회조류에 현실의 정치는 공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51세에 공자는 노 정공(定公)의 요청에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 노나라 중도(中都: 지금의 산동성 문상현)의 재상에 임명되었다. 재상이 된지 1년 만에 주대의 사회처럼 안정이 되어 갔다. 그러자 공자의 위상이 더 확고해 지면서 사공(司空)으로 승진하여 건설공사를 관리하게 되었고, 또 얼마 있다가 사법을 관장하는 사구(司寇)로 승진하게 되었다. 공자는 직책이 사구였음에도 도덕에 어긋나는 사람과 일이 있으면 사회에 질책을 받게 함으로써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를 더 중시하는 정치의 전통을 형성하였다.

공자 나이 52세 때, 노 소공과 제 경공이 협곡(夾谷: 지금의 산동성 래무 동쪽)에서 회담을 하게 되었는데, 공자는 예(禮)로써 그들의 음모를 꺾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여 자신의 위상을 더 높였다. 이후 공자의 명성은 더 높아지면서 이에 위협을 느낀 제나라는 공자를 없애기 위해 음모를 꾸며 노 정공과 계환자를 화해시키고 사신을 시켜 가무(歌舞)들과 화려한 마차를 보냈다. 노 정공과 계환자는 여기에 정신이 팔려 정사(政事)도 돌보지 않았고, 공자에게 더 이상의 희망을 주지 않자 공자는 사임을 했다. 이때 나이 55세,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펴기 위해 제자들과 14년간 철환천하(轍環天下)[06]하였다.

05 『논어』「안연」 1장 「옹야」 28장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仁이다. 무릇 인이란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미 공자의 명성은 높았기에 공자는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난세(亂世)에 사람들은 공자의 사상에 찬동은 하면서도 공자의 이상을 위해 나서는 임금은 없었다. 한편 공자의 일행은 가는 도중에 위나라 광(匡)지역에서 며칠간 잡혀 위협을 받았다. 이때 공자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 문왕이 돌아가신 뒤, 주대의 문화 전통이 모두 우리들에 의해 계승되지 않았느냐? 하늘의 뜻이 이런 문화 전통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면, 저들이 함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다."[07]라고 하여 제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공자의 일행은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갈 때도 송나라의 사마(司馬) 환퇴(桓魋)가 이끌던 무리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진나라에서 초나라로 갈 때도 오나라와 초나라의 병사들에게 잡혀 고생과 굶주림으로 힘든 여정을 보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공자는 태연하게 평소와 똑같이 강학을 하였고, 또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갔다. 68세에 공자는 방랑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현실에서는 추구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위나라를 떠나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다.

당시 노나라 집정자인 계강자(季康子)는 공자를 환대하였고, '국노(國老)'로 대우해주었다. 애공(哀公)과 계강자는 공자에게 국정의 자문도 하였으나 공자의 정치적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공자 곁을 떠나 계강자 측에 섰던 염구와 몇 몇 제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공자의 정치적 이상을 신봉하지 않았다. 수십여 년간 힘겹게 지내온 공자에게 현실사회와 제자들과의 단절은 고독감을 갖게 하였다. 또 공자의 부인이 죽은 이후, 아들 리(鯉)의 죽음과 연이은 제자들의 죽음은 공자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공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문화 교육사업에 쏟아 부었다.

그리하여 공자의 제자는 약 3천 명에 이르렀고, 그 중 '육예(六藝)'에 통달한 자도 72명이나 되었다. 한편 많은 제자들은 노나라는 물론 여러 나라에서 큰 활약을 하여 공자의 명성을 더 높였다. 그리고 공자는 수십여 년간의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육경(六經)'을 정리하고 편찬하였다.

71세 때, 공자는 노나라 서쪽에서 기린(麒麟)[08]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슬퍼하며, 『春秋』에 그해 첫 번째 사건으로 "서쪽에 기린을 사냥하다(西狩獲麟)."라고 기록하고는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사기』「공자세가」에 공자는 죽기 얼마 전 "천하에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아무도 나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장사를 치를 때…(중략) 은나라 사람들은 양쪽 기둥 사이에 모셨다. 어젯밤 나는 두 기둥 사이에 놓여져 사람들의 제사를 받는 꿈을 꾸었다. 나의 조상은 원래 은나라 사람이었다."라고 하여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이상과 조상을 잊지 않으며 73세에 세상을 떠났다. 공자는 쓸쓸하게 죽어갔지만, 죽은 뒤 그의 명성과 지위는 서서히 높아져 그를 위대한 성인(聖人)이라고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자의 교육방법[09]은 현대 교육학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고, '육경(六經)'의 정리와 편찬은 고대 중국문화를 보전하고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06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공자가 교화를 위하여 중국 천하를 돌아다닌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전경』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道傳於彼天開於子 轍環天下虛靈" (공사 3장 39절).

07 『논어』「자한」 5장

08 중국 신화에 나오는 외뿔 짐승. 이 짐승의 출현은 매우 드물며 흔히 현인이나 뛰어난 성군(聖君)이 곧 태어나거나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

09 토론식 진행 방법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켜 개인의 소질에 맞추어 가르치는 방법.

서구 방면

유영예 보정

취재 **교무부**

음력 4월 본부성 오전, 여주본부도장으로 오신 유영예 보정과 종무원 2층 응접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대화를 나누면서 뒤늦게 이 봉이 내수로써 처음으로 도주님의 시봉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태극도의 여러 시봉 중에 유일하게 도전님을 따라 올라오셨다고 한다. 도주님의 시봉으로서 겪은 일화와 도전님의 덕화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볼까 한다. 유영예 보정은 음력 1938년 생으로 음력 1951년 5월 15일에 입도하여 음력 1988년 5월 22일에 보정임명을 모셨다.



어린 나이에 입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9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입도를 했습니다. 너무 어린나이에 입도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밤 1시 기도를 모시기 위해 법수준비를 한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기도를 모시기 위해 저 혼자를 한겨울 엄동설한에 물을 떠오게 하셨습니다.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떠올려 두 손으로 들고 집에 돌아오면 팔은 피부가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기도를 모셨습니다. 몇 년 뒤 부모님께서는 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닦아야 한다면서 제가 13살 되던 해에 부산 보수동 판자집(당시 태극도 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모님의 소개로 어떤 아저씨(남자시봉)를 만났는데, 집에도 가지 않고 보수동 도장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어떤 할아버지한테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바로 옥황상제님이란 것을 알았지요. 그 당시에는 조정산님이라고 호칭을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시봉 당시에 도주님은 어떠한 분이셨나요?

제가 곁에서 본 도주님께서는 실제로 『전경』에 '그 음성이 웅장하고 안광이 부시어 범의 눈초리와 같고 목은 학의 목과 같고 등은 거북의 등과 같고 이마가 해나 달과 같이 빛이 나서 관상을 남달리 하셨도다.'(교운 2장 3절)하신 것과 같이

성품도 바르시고 강직하셨습니다. 지금 여주본부도장 영대의 진영에서 보는 것과 똑같으셨어요.

제가 충청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주님께서 경상도 방언으로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도주님의 말씀은 '우웅 우웅' 하는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항아리에 머리를 넣고 말을 하면 울리듯이 우렁차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도주님 말씀을 모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철없이 행동하는 저에게 항상 인자하시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챙겨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도주님을 모시면서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어린 나이에 겪었던 도장생활은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충청도로 보내달라고 철없이 하소연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도주님께서 보시고는 애처로우신 듯이 저를 걱정해주시고 편안하게 대해 주셨어요.





한번은 도주님께서 감천으로 도장을 옮기시려고 할 때, 제가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에 무작정 보수도장을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도주님께서 아신 뒤 제가 꾸중을 많이 모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정하실 때는 한없이 저를 관대하게 대하시다가도 엄하실 때는 추상(秋霜)과도 같으셨습니다.

그 후에 감천도장으로 가서 생활을 하다가 17살이 되어 분향을 계속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시봉들이 들어와서 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정을 엄청 가렸거든요. 저는 20살 될 때까지 도장을 다녔습니다.

도주님께서 화천하시기 1년 전, 도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시집을 가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충청도에 가서 아시는 분의 소개로 간소하게 혼인식을 올렸답니다. 그 당시에 30여 명의 시봉들 중에서는 저만 시집을 갔었거든요. 그래도 도주님께서 저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 때문인지 도주님 화천하신 이후에 다른 시봉들의 시기질투로 인하여 제가 음해를 받아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이러한 일로 제가 몸이 아프게 되어 도심이 조금 흔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주님 화천(化天)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때 도주님께서는 도주님 가족과 시봉들은 밖에서 대기해 있게 하시고 임원들 전부를 부르셨습니다. 도주님 방에 몇몇 임원만 들어오시게 하고 문을 닫아 놓았었는데, 제가 곁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도주님께서 누워계시면서 도전님의 머리 위에 살포시 손을 얹으셔서 귀속 말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방에서 나와 조금 있다가 보니까 도주님께서 화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로 그토록 허무할 때가 없었답니다.

화천하시기 전에 제가 밖에서 우렁찬 소리를 들었는데, 알아보니까 임원들이 나오시면서 저에게 귓속말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전경』 교운 2장 66절의 말씀처럼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 번을 부르시던 내용이었어요.

도주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도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따라와야 돼. 다른 불평하지 말고 날 따라와야 돼." 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제가 중간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을 때 계속 수도하게 된 것이 그때 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제 마음을 아시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주님께서 화천하시고 도전님을 어떻게 뵙게 되었는지요?

태극도 당시에 난리가 나서 한동안 힘들어 할 때 어느 날 시댁 친척인 선무가 와서 도전님께서 중곡동에 도장을 지어서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셨으니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시동생 이사를 해주러 왔다가 혼자서 택시를 타고 중곡도장까지 갔었습니다.

도장입구에서 보니까 옛날 부산 감천에 계셨던 분들이 서 계셨습니다. 그 때 저에게 와서 유시봉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냐면서 놀라면서도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도전님께 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하게 내정으로 달려 갔습니다. 조금 뒤 도전님과 가족들이 나오셔서 매우 반갑게 맞이 해주셨습니다.

내정에 들어가서 인사를 올리자 도전님께서는 저와 같이 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영대로 가시더라구요. 상제님 진영 앞에서 직접 손수 분향하시고 촛불을 키셨습니다. 배례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누가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어요. 태극도 당시 도전님께서 임원으로 계셨을 때 저하고 스스럼없이 지낸 것만 생각하고 영대에서 엎드려 염치없이 펑펑 울었어요. 실컷 울고 나니까 눈물이 장관에 그득했어요.

울음을 그치고 배례를 드린 뒤 보니 창문 옆에 도전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영대 밖에 있는 중곡동 주변 지형을 자상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때 도주님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또다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시 내정으로 간 뒤 도전님께서는 옛날 감천에서의 지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제게 "고생 많이 하였다. 많이 보고 싶었고, 여기에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제가 감천에서 음해와 수모를 당한 것을 잘 아셨거든요.

내정에서 대접을 잘 받고 후문으로 나갔는데 그곳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도전님께서 부산방면 서대원 선감을 부르시더니 제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 서선감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도전님 앞에서 서선감은 저에게 도를 꼭 닦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걸고 또 손도장까지 찍으면서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도전님께서 보시고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도전님께서 그 자리에서 시봉들이 그렇게 많아도 옥황상제님 시봉은 저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일을 계기로 서선감 앞에서 수도를 계속하여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해오시면서 보람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때 너무 아팠는데, 누워 있을 때 어느 날 포덕사업을 하면 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포덕사업을 하니까 병이 차츰 차츰 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기색이 보이면 남편은 빨리 회관이나 도장에 가라고 부추깁니다.

도장에 간다고 말하면 아무리 오래 있다가 와도 고생했다는 말 이외에는 별 다른 내색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몸이 좀 아프면 남편이 기도를 모시자고 하는데 더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포덕사업을 통해 열심히 수도를 해야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좋지 않을 때 도전님께서 시료를 받아 보라고 하셔서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료를 본 뒤 비록 말할 수없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는 못살았던 제가 안경도 벗고 몸도 가뿐해졌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안경을 벗어도 깨알같이 작은 것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의 남편도 시료를 보았는데 쓰고 있던 안경을 벗었어요. 그땐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수도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매사에 항상 일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한 발짝 양보하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욕심을 버리고 수도를 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욕심 많고 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수도를 하면서 스스로 양보하고 욕심도 버릴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도인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면 기대하는 마음이나 욕심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없으면 섭섭한 것도 자연히 없게 됩니다. 바라는 것 없이 상대에게 주려는 것이 남 잘되게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교법 1장 2절)는 말씀처럼 진심으로 남을 잘 되게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도인다운 처세가 된다고 봅니다. 도를 닦으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포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상제님의 진리를 알리는 포덕사업은 자신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춘(立春) 절후를 관장하는

위징(魏徵) 2

- 정관 초기 위징의 간언과 당 태종의 수용 -

글 교무부



위징

정관 초기 당 태종 이세민은 신하들에게 적극적으로 간언(諫言)을 하도록 이끈다. 위징의 간언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그는 조금도 회피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위징의 간언을 보면 그가 당 태종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정관(貞觀) 4년(630) 이 해에 사형으로 판결 받은 자가 29명이었다. 태종이 이러한 상황을 탄식하며 말하길 "지금은 천하의 큰 난리가 지난 직후이니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위징이 말하길 "대란(大亂) 이후 다스리기가 쉬운 것은 비유컨대 배고픈 사람에게 쉽게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종이 말하길 "옛 말에 선한 자가 나라를 다스린 지 백년이 지나야 백성을 죽이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위징이 말하길 "그것은 성인(聖人)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의 호응함이 마치 메아리와 같아서 한 달이면 평안해질 수 있사오니 어찌 어렵겠습니까?"

봉덕이(封德彝)가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이후에 나라의 기강이 날로 무너짐에 진(秦)나라는 법률에 의거해 다스렸고, 한(漢)나라는 패도(霸道)와 왕도(王道)를 섞어 다스렸습니다. 이는 다스리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던 것이지 다스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징은 서생(書生)이라 공론(空論)을 좋아하여 헛되이 나라를 어지럽히니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위징이 말하길 "삼황(三皇) 오제(五帝)는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도를 행하여 왕이 되신 것이니, 이는 그들의 행한 바가 어떠한 가를 볼 따름인 것입니다. 황제(黃帝)가 일흔 번을 싸워서야 치우(蚩尤)에게 이길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무위(無爲)의 다스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구려(九黎)가 덕을 해치는 정치를 하니 전욱(顓頊)이 그를 쳐서 이긴 후에야 잘 다스려질 수 있었습니다. 걸왕(桀王)이 폭정(暴政)을 하자 탕왕(湯王)이 그를 내 쫓았고, 주왕(紂王)이 무도하자 무왕(武王)이 그를 처벌했습니다. 이리하여 탕왕과 무왕 때에는 태평시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기강이 점점 무너져 진실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은 이미 도깨비나 귀신처럼 되었을 것이니, 어찌 그들을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봉덕이는 반박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위징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태종은 위징의 말을 받아들여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하여 천하가 잘 다스려지게 되었다. 동쪽으로 바다 끝까지 남쪽으로 산 너머까지 사람들은 대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여행객들은 식량을 준비하지 않고 도중에서 얻어먹을 수 있었고, 오랑캐의 우두머리들은 한족(漢族)처럼 의관을 착용하고 칼을 차고 나라를 지켰다.

태종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길 "이것이 위징이 내게 인의(仁義)의 다스림을 행할 것을 권하여 그 효력이 나타난 것이다. 봉덕이에게 보여주지 못함이 애석하다." 위징은 얼마 안 있어 시중(侍中)의 직책을 맡았다가 작군공(綽郡公)으로 승진하였다.

태종이 구성궁(九成宮)에 행차하였는데 태종을 모시는 궁인(宮人)들은 궁성아래 숙사를 정했다. 이때 복야인 이정[李靖:청명(淸明) 절후를 관장]과 시중(侍中)인 왕규(王珪)가 잇달아 도착하니 관리들이 궁인들의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이정과 왕규를 머물게 했다. 태종이 이런 일을 전해 듣고 노하여 말하길 "어찌하여 나의 궁인들을 경시하는가?" 하면서 관련된 자들을 문책하도록 명령했다.

위징이 말했다. "이정과 왕규는 모두 폐하의 심복(心腹) 대신입니다. 궁인들은 단지 궁을 청소하는 시종일 따름입니다. 대신들이 출정하면 궁성의 관리는 조정의 법식을 따라야 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폐하께서는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셔야 합니다. 무릇 관사(官舍)에 이정 등 조정 대신이 오면 관리들은 응당 그들에게 예의를 갖춰 대접해야 하며 궁인들은 이와는 달리 음식을 올리는 등의 일 이외에는 관여치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 관리들을 문책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태종이 깨닫고 다시는 문책하지 않았다.

뒷날 단소루(丹霄樓)에서 연회를 여는데 태종이 술을 마시면서 장손무기[長孫無忌:동지(冬至) 절후를 관장]에게 말하였다. "위징과 왕규가 은태자(隱太子, 당 고조의 첫째 아들 이건성)와 소왕(巢王, 당 고조의 넷째 아들 이원길)을 섬길 때에는 정말 미웠는데, 내가 원망함을 버리고 그들을 등용했으니 고인(故人)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다. 그런데 매번 위징이 간언하면서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말하면 위징이 언제나 '아니다' 고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위징이 말하길 "신은 폐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간언하였습니다. 만약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폐하의 말씀이라 하여 따른다면 폐하께서는 곧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겠습니까. 신은 그것을 염려하였습니다."

태종이 말하길 "공손한 마음으로 먼저 나의 말에 따르고 별도의 방법으로 달리 진언(進言)하면 되지 않겠는가?"

위징이 말하길 "옛날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내 앞에서는 따르면서 물러나서 뒷말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만약 폐하의 말씀대로 앞에서는 따르고 별도로 진언(進言)한다면 이것이 바로 순임금께서 말씀하신 뒷말인 것입니다. 후직(后稷)과 우(禹)는 요순(堯舜)을 이와 같이 받들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길 "사람들이 말하길 위징의 행동이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하는데 나는 단지 그의 아름다운 모습만 볼 뿐이다."

위징이 거듭 절하며 말하길 "폐하께서 소신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히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소신의 간언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신다면 신이 어찌 여러 번 폐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관 7년(633) 위징은 시중(侍中)이 되었다. 이때 상서성(尙書省)에 해결되지 않은 묵은 소송(訴訟)이 있었는데 태종이 위징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위징은 법률의 대략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익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각 소송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처결했는데 사람들이 기쁘게 따랐다.

위징은 승진하여 좌광록대부(左光祿大夫)와 정국공(鄭國公)이 되었는데 병이 많아서 사직(辭職)하고자 했다. 태종이 말하길 "공은 어찌 보지 못하는가. 금이 귀하다고 하나 산에만 있다면 그 귀함을 어찌 사람들이 알겠는가. 훌륭한 대장장이를 만나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가. 짐은 방금 스스로를 금에 비유하였다. 경(卿)을 훌륭한 대장장이로 하여 짐을 단련(鍛鍊)하려고 한다. 경이 비록 병이 있다고 하나 아직 노쇠하지는 않았으니 어찌 경의 편의를 보아줄 수 있으랴?" 하였다. 위징은 간청(懇請)하였으나 거듭 거절당했다. 오히려 특진(特進)하여 문하성(門下省)의 일을 관장하였으며 태종의 명으로 조정의 문장과 나라의 법률을 정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그 득실을 논하고 봉록, 관직, 국방 등의 문제를 처리했다.

문덕황후를 소릉(昭陵, 당 태종이 死後 합장됨)에 장사지낸 후 태종은 궁궐의 뜰에 누대를 만들어 소릉을 바라보곤 했다. 언젠가 태종이 위징과 같이 누대에 올랐다. 위징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하길 "신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태종이 소릉을 가르키니 위징이 말하길 "저곳은 소릉이 아닙니까?"

태종이 말하길 "그렇다."

위징이 말하길 "신은 폐하께서 헌릉(獻陵, 당 고조 이연의 능)을 바라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소릉은 이미 보았습니다." 태종은 이 말을 듣고 누대를 허물도록 명령했다.

태종이 낙양에 행차하여 소인궁(昭仁宮)에 머물렀는데 대접이 소홀하다 하여 꾸짖는 일이 많았다. 위징이 말하길 "수(隋)나라는 오직 음식을 헌납치 않고 받들어 봉양함이 정성스럽지 않은 것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망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늘이 폐하께 수나라를 대신하라는 천명(天命)을 내리셨으니 삼가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검약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스럽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도록 하십니까. 만일 족하게 여기신다면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여기신다면 지금의 만(萬) 배라고 해도 어찌 족함이 있겠습니까?" 태종이 놀라며 말하길 "공이 아니면 이러한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오."라고 했다.

위징이 물러나서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덕(德)을 밝히고 벌(罰)은 신중히 하라', '오직 형벌을 아낀다' 라고 하였고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윗사람이 의심이 많으면 백성은 미혹하게 되고, 아랫사람이 알기 어려우면 임금이 수고스럽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벌을 주고 상을 내리는 근본은 권선징악(勸善懲惡)에 있는 것입니다. 제왕이 내리시는 바는 천하에 한결 같으셔야 합니다. 친소(親疎)와 귀천(貴賤)에 따라 벌의 경중(輕重)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과 벌은 폐하의 희노(喜怒)와 호오(好惡)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하가 즐거우시면 법에 저촉된 일이 있어도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화가 나시면 법률에 없는 것도 죄(罪)가 됩니다. 좋아하시면 가죽에 구멍을 뚫어서 터럭만한 것이라도 찾아내시고 싫어하시면 때를 벗겨서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십니다. 무릇 형벌이 지나치면 소인(小人)의 도가 생겨나고 상(賞)이 잘못 내려지면 군자의 도가 소멸됩니다. 소인의 악을 징계하지 않고 군자의 선을 장려하지 않으면서 다스림이 편안해지고 형법이 잘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자에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바치는 물건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폐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좇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내리시니 이는 모두 다스림의 급선무는 아닙니다. 무릇 '부귀(富貴)는 교만과 사치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와 교만은 저절로 이른다.' 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실로 빈말이 아닙니다.

또한 소신이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수(隋)나라입니다. 수나라 국고(國庫)의 저장량과 현재의 우리의 창고에 있는 물자(物資), 수나라 병사, 병마(兵馬)와 현재 우리 군대의 현황, 수나라 당시의 전국 호구(戶口)와 현재 우리 백성의 숫자 이 모두를 비교할 때 현

재의 몇 배를 보태야 수나라의 전성기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나라는 부강하였지만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는 동요(動搖)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가난하고 수도 적지만 편안하니 이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되면 편안하고 동요되면 어지럽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숨겨져 있어서 알기 어렵고 미미(微微)하여 관찰하기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스려질 때는 난국(亂局)을 염두에 두지 못하며, 존속되어질 때는 망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바야흐로 수나라가 아직 어지러워지기 전에는 스스로 난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자주 동원하고 부역(賦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살육(殺戮)되고 치욕(恥辱)을 당함에 이르러서도 멸망하게 되는 까닭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얼굴이 예쁜지 미운지 알려면 반드시 고요한 물에 비춰보아야 하고, 정치의 안녕과 위태로움을 살펴보려면 반드시 망한 나라를 본보기로 취해 보아야 합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길 '은(殷)나라의 본보기는 멀지 않다. 바로 하(夏)나라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소신이 바라건데 오늘날 동요(動搖)와 안정(安定)은 수나라를 귀감(龜鑑)으로 하여 본다면 존속될 것인지, 다스려질 것인지 혹은 어지러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까닭을 생각하면 편안할 수 있고, 어지러워진 까닭을 생각하면 다스릴 수 있으며, 망한 까닭을 생각하면 존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존망(存亡)은 폐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기호(嗜好)와 욕심을 절제하시고, 사냥 다니시는 것을 삼가시고, 사치한 것을 멈추고, 급하지 않은 일은 중지하며, 한쪽의 말만을 듣는 것을 신중히 하고, 충성스러운 이를 가까이 하며, 아첨하는 이를 멀리하십시오. 무릇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은 쉽고 나라를 새로 얻는 것은 실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그 어려운 바를 성취해 놓고 어찌하여 그 쉬운 바를 지켜나가지 못하십니까. 보존함이 견고하지 않으면 교만과 사치와 방탕함으로 나라를 동요시키게 될 뿐입니다.



(영화 '화평의 길' 의 한 장면)

이글거리는 불길은 날벌레를 미혹하고
허(虛)는 욕망과 권세의 화려한 색을 입고 길[道] 찾는 이의 눈을 멀게 한다.
하지만 진정, 진리란 요란함이 없는 법.
드러내지 않고 오직 만물 안에서 겸양하니
삼라만상 어디든 소리 없이 응하시는 그 분의 덕이 그것이다.
더욱이, 참으로 소박한 것이 있어 그 또한 진리인즉
낡은 삿갓에 허름한 도포자락
병든 세상 주유하고 어루만진 그 손길이 그렇게도 소박했던가.
진리와 허상 사이 길 헤매는 이, 마음의 눈을 뜨고 가슴으로 느껴보라.
따뜻하게 만물을 어루만져 주신 소박하고 소리 없는 그 손길을.

글 **김 대 현**

우맹의관(優孟衣冠)

– 우맹이 의관을 차려입다 –

글 **교무부**



우맹은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음악인으로, 풍자를 잘하여 주변사람들을 잘 웃겼다. 재상(宰相) 손숙오(孫叔敖)가 그의 재주를 알아보고 평소에 잘 대해 주었다. 손숙오는 평소에 청렴결백하였는데 병이 들어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너는 틀림없이 빈곤해질 터이니, 우맹을 찾아가서 네가 손숙오의 아들이라고 말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손숙오가 죽고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아들은 과연 곤궁해졌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서 우맹을 찾아가 자신이 손숙오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우맹은 손숙오로부터 평소에 잘 대우받은 터라 그의 아들을 돕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는 손숙오처럼 의관을 갖추고 몸짓과 말투를 흉내 내기 시작하여 얼마쯤 지나자 손숙오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었다.

이때 초나라 장왕이 주연을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참석하여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장왕은 손숙오가 환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크게 놀라며, 그를 다시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우맹은 집에 가서 생각해본 뒤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몇 일 뒤에 다시 와서는 "초나라 재상은 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손숙오라는 사람은 충성을 다하여 왕이 패자(霸者)가 될 수 있도록 보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그 아들은 한줌의 땅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땔나무를 팔아 연명하고 있습니다. 손숙오처럼 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장왕은 잘못을 사과하며 손숙오의 아들에게 먹고 살만한 땅을 주었다.

이 고사는 『사기(史記)』「골계열전(滑稽列傳)」에 실려 있는 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더불어 이에 보은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는 그 덕이 대를 이어 후손에게까지 미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은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해준다. '남 잘되게 하는' 공부와 '보은상생'의 대도를 닦는 수도인의 귀감이 될만한 것이라 하겠다.

외금강 이야기

(36) 남효온(南孝溫)과 김시습(金時習)의 금강산 여행

글 교무부



추강(秋江) 남효온(1454~1492)[01]은 15세기의 이름난 문장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성격이 활달하고 자유분방하여 가까운 벗들과 함께 아름다운 명산대천을 유람하면서 글짓기를 좋아하였다.

효온이 태어난 이듬해에 수양대군[世祖]의 왕위 찬탈사건이 있었다. 충의(忠義)에 충실했던 그는 앞날이 촉망되는 청년으로 성장한 다음에도 세조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으로 인하여 벼슬길을 마다하였고 일생 은둔생활을 하면서 왕과 옳지 못한 조정의 무리들을 폭로, 조소하는 수많은 시(詩)를 썼다. 그는 세조의 그릇된 처사를 끝까지 반대하였고 당시 금기시되던 사육신(死六臣)의 절의(節義)를 다룬 전기(傳記)인 『육신전(六臣傳)』도 지었다. 그리하여 효온은 후세에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 만큼 매월당(梅月堂) 김시습과는 나이 차이가 비록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매우 친근하게 지냈다.

01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원호(元昊) · 이맹전(李孟專) · 김시습 · 조려(趙旅) · 성담수(成聃壽) 등과 함께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세조(世祖)와 정난공신(靖難功臣)들을 부정하는 소릉(昭陵 문종의 비 현덕왕후의 능) 복위 상소를 올렸다가 배척되었고, 그의 사후에는 이 일로 인해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 때 부관참시(剖棺斬屍)까지 당했다. 그 후 남효온은 벼슬을 단념하고 세상을 두루 돌아보며 기품 바른말과 과격한 의론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산수를 좋아해 국내의 명승지에 그의 발자취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주요저서로는 『육신전』과 『추강집(秋江集)』 등이 있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남효온이 벗들과 함께 금강산을 찾은 어느 해에 있었던 일이다. 때마침 금강산에는 김시습도 이미 와 있었다. 시습이 금강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효온은 함께 온 친구들과 그가 묵고 있는 숙소부터 찾았다.

효온은 마당에 들어서며 "동봉(東峰: 김시습의 다른 호)!"하고 소리쳐 불렀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어젖힌 시습은 마당에 서 있는 효온을 보자 "추강!"하며 마주 달려 나왔다. 오래간 만에 다시 만난 벗들은 서로 얼싸 안고 그리웠던 정을 나누었다.

시습은 "우리 몇 해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저기 산수정(山水亭)에 올라가서 회포를 나누세나." 하고는 먼저 정자에 올라갔다. 산수정에서 그들은 그간 지내온 소식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질 즈음이었다. 효온 일행과 내일 금강산으로 오르는 것에 대해 논의하던 시습이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갑자기 정자에서 두어 길(한 길은 사람 키 정도임) 되는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 내려가 보니 그가 크게 다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모두들 달라붙어 팔과 다리, 가슴을 주물러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습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모두가 함께 그를 맞들어 정자 안에 눕혔을 때 효온은 "동봉이 이렇게 중상을 입었으니 내일 어떻게 금강산을 오르겠소."하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습은 오늘 밤에 치료를 잘해서 만약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당신들을 따라가겠으니 여러분들은 후원에서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가까스로 말했다.

다음날 아침에 효온 일행은 약속한 대로 후원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에도 김시습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일행은 의아함을 금치 못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습은 조금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 중상을 입은 사람 같지 않게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몸가짐으로 말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천연덕스러워 효온은 "아니, 동봉은 무슨 요술을 부려서 우리들을 속였소?"하며 핀잔 비슷하게 말했다.

"내가 속였다니, 그럴 리야 있겠나. 추강은 아직 몰라서 그렇지만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온정동 골짜기 안에는 어혈(瘀血)을 푸는 데 특효가 있는 온천이 있다네. 그래서 어젯밤과 이른 새벽에 거기서 한바탕 목욕도 하고 뜸질도 했더니 이렇게 씻은 듯이 나았네그려."

김시습이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운차게 걸어 나가자 효온은 "금강산은 과연 명산이로다!"라고 감탄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남효온은 그때 김시습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조선 시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금강산탐승기의 하나인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를 썼다고 한다.

Q&A 게시판

글 교무부

Q: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관운장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전경』(교운 1장 10절)에 따르면 상제님께서는 교운(敎運)을 펼치신 후에 종도들에게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관운장(關雲長)'입니다. 관운장은 서기 200년 전후인 후한(後漢)말기부터 삼국시대에 실존했던 역사상의 인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미터 육박한 키에 얼굴은 대추처럼 붉었으며, 멋진 수염을 휘날리며 적진을 누볐던 무장(武將)입니다. 그의 용맹무쌍한 활약상은 소설인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정사(正史)인 『삼국지』에 남아있는 모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록을 통해 볼 때 분명히 그의 의리(義理)는 세인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義)'의 대명사가 된 관운장은 후세에 오면서 신(神)으로 숭상 받게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는 관운장의 이미지가 신용을 중시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크게 호응을 받아, '군신(軍神)'이었던 관운장이 '재물신(財物神)'으로도 숭배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현세의 복을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관운장 신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림(중국 낙양시 소재)에 모셔진 관운장

이후 대중에 널리 퍼져나간 관운장 신앙은 통치자들에 의하여 점점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민간신앙에서 국가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북송(北宋)의 휘종(徽宗, 제위기간 1110~1125)이 관운장을 왕(王)으로 승격시킨 이후 원(元), 명(明), 청(淸)을 거치는 동안 관운장은 역대 제왕들의 추증(追贈)을 끊임없이 받아 왕에서 제(帝), 제에서 성(聖), 성에서 천(天)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운장 신앙이 유입된 시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명(明)의 원군파병(援軍派兵)에 따른 재조지은(再造之恩: 거의 멸망하게 된 것을 구원해 준 은혜)의 논리에 따라 관운장 신앙이 유입되었습니다. 명나라의 주도에 의해 세워진 관왕묘(關王廟)는 관운장의 영험함과 관련전설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적인 의례가 계속되면서 관운장은 중원장(中原將)이 아닌 조선의 수호신(守護神)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고종(高宗, 1852~1919)에 이르러서는 관운장이 황제로 격상되어 그의 호를 '현령소덕의열무안관제(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로 개칭하였습니다.

조선의 관운장 신앙은 중국과 달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 민간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 있어서 관운장은 당초의 목적[나라를 수호하는 군신(軍神)]과는 달리 기복적인 민간신앙으로 확산되어 수호신, 군신(軍神)일 뿐 아니라 재신(財神)까지도 겸한 신

양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운장은 조선에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지식인, 평민과 무속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에 의해 극진한 공대를 받았습니다.

현재 뤄양(洛陽)에는 관운장의 묘인 '관림(關林)'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황제의 무덤을 '능(陵)'이라 하고, 성인(聖人)의 무덤을 '림(林)'이라 호칭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공자의 무덤인 '공림(孔林)'과 더불어 관우의 무덤인 '관림(關林)'을 '이림(二林)'으로 부르고, 문무(文武)의 상징적인 인물로 추존(推尊)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제묘(關帝廟)'라는 관우의 사당을 중국의 전역에서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운장은 신앙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중국뿐 아니라 화교들이 살고 있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세계전역에 널리 퍼져 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宗團)에서도 관운장은 영대에 모셔진 한 신위(神位)로서, 또 관련 전경구절과 주문(呪文)으로 수도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외에 『전경』 권지 2장 21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상생의 길』 창간호에 실려 있는 「조선에서 극진한 공대를 받은 관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전원 · 이소선 공저, 손경숙 · 김진철 역, 『삼국지 고증학2』, 서울:청양, 1997.
- 이마이즈미 준노스케 저, 이만옥 역, 『관우』, 서울: 예담, 2002.

『典經』 용어

글 교무부

『전경(典經)』은 상제님께서 천하를 대순(大巡)하시고 인세에 강세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로 후천(後天)의 지상천국을 약속하신 진리와 상제님으로부터 천부적 계시로 종통을 계승한 도주님의 종교활동을 기술한 대순진리회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전경』에 나오는 용어들 중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대순진리의 의미를 함축한 용어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전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사전형식에 맞추어 코너로 연재하오니 수도인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가긍(可矜)**: 제생 44절/310쪽. 불쌍하고 가엾음.
- **가름**[1]: 행록 1장 28절/10쪽. 상환을 분별함.
- **가름**[2]: 교법 2장 31절/239쪽. 갈음. 바꾸어 대신함.



1861년(철종12년)에 지어진 98칸 가옥내의 한 채 (한국민속촌 소재)

- **가작천간옥(可作千間屋)**: 예시 44절/324쪽. 가히 천 간의 집을 지을 수 있음. 1간은 두 개 기둥사이를 말한다. 만약 어떤 건물의 앞면에 기둥이 5개가 서 있으면 이를 4간이라 하고, 옆면에 기둥 4개가 서 있으면 3간이라고 하여, 4간×3간 해서 모두 12간 건물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에는 민가에서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를 제한하였는데,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간수가 99간이었다.

- **가절(佳節)**: 교운 1장 45절/174쪽. 좋은 명절.
- **가친(家親)**: 제생 16절/297쪽.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 **가활만인(可活萬人)**: 예시 54절/328쪽. 가히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음.
- **간낭**: 교법 1장 3절/221쪽.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간(肝)이 나무잎사귀를 닮았으며 분노를 주관하는 장기이므로 이를 상징하여 표현한 말이다. 간은 오행상 목(木)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모양도 나무잎사귀를 닮았다 하여 '간엽(肝葉)', 또는 '간잎'이라 불리기도 한다. 한방에 따르면 심장은 기쁨, 폐는 슬픔, 비장은 생각, 신장은 공포와 관련이 깊은 장기이며, 분노를 주관하는 것은 간이라고 한다. 실제로 몹시 성을 내게 되면 간이 상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이를 '노상간(怒傷肝)'이라 하며,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간의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것은 '간기상역(肝氣上逆)'이라고 한다.

  이 모두는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사람이 지나치게 분노하면 혈(血)과 간기(肝氣)가 위로 치밀어 올라 얼굴이 빨개지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심하면 피를 토하거나 정신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간은 승발기능(양기를 상승, 발산시키는 기능)만을 할 뿐 소설기능(불필요한 것을 배설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여 간기울결(肝氣鬱結) 증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실제로 상대에게 화내다가 본인이 화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일이고 보면 분노의 감정과 간은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순회보』 71호 p.68 참고)
- **간방(艮方)**: 권지 1장 1절/262쪽. 예시 50절/326쪽. 이십사방위(方位)의 하나로서 북동을 가리킴. 정동(正東)과 정북(正北)의 사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15도 각도 안의 방향이다.
- **강절관매법(康節觀梅法)**: 예시 34절 320쪽. 송(宋)나라의 하남(河南) 사람이었던 소옹[(邵雍 : 1011~1077, 호: 강절(康節)]의 관매수(觀梅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점술서적. 소강절은 어떤 노인으로부터 주역의 글과 점하는 예가 담긴 신기한 책을 얻어 연구한 끝에 새로운 방법으로 미래를 점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하루는 매화꽃을 감상하고 있다가 새 두 마리가 서로 싸우다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이 사건을 가지고 점을 쳐서 그 다음날 저녁에 이웃집 여자가 꽃을 꺾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칠 것을 미리 알아낼 수 있었다. 이로부터 소강절의 점치는 법은 '관매수'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소강절이 평생 동안 추구한 학문은 심역(心易)을 바탕으로 한 상수역학이었다. 심역이란 서역(書易)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우주 자연계에는 역서(易書)가 있기 이전에 이미 천지만물을 생성하고 변역(變易)시키는 법칙과 원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를 선천역 또는 자연역(自然易)이라 한다.


〈소강절〉

이 자연역을 그대로 괘효(卦爻)와 글로 옮긴 것이 서역이며, 또 이 자연역을 그대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로 옮긴 것이 곧 심역이다.

심역으로 변통하는 점법(占法) 즉 관매수는 선천 자연역을 기본으로 천지만물의 자연현상에서 직접 수(數)를 일으키고 괘(卦)를 취하여 점괘를 얻는 것으로서, 『주역』을 기본으로 하는 서죽(筮竹)의 책수(策數)를 헤아려 수(數)와 효(爻)를 얻는 종래의 점법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24방위와 간방〉

※ 참고문헌은 매호마다 출처가 반복되어 기재될 수 있는 관계로 연재가 끝난 후 실을 예정입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교무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금(伽倻琴)

글 교무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의복, 기구, 가옥 등과 같은 것을 민속자료라고 일컫습니다. 『典經』을 살펴보더라도, 옛 민속자료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려는 열성이 미약한 나머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순회보』는 『典經』 민속자료'라는 코너를 새롭게 연재함과 더불어 종단에서는 다양한 민속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각 방면과 여러 수도인들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나 혹은 주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옛 민속품을 여주본부도장으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최태기 악기장으로부터 손수 6개월 이상 정성과 예술의 혼을 담은 가야금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이해 여름에 경석이 상제를 모셨도다. 이때 종도들이 악사를 불러 가야금을 타게 하고 즐겁게 놀고 있었노라. 이것을 말리시면서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있는 곳에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헛된 일을 못하느니라. 저 하늘을 보라" 하시니 구름도 상제의 기운이 종도들이 놀고 있는 모양을 짓고 중천에 떠 있었도다.(권지 2장 30절)





〈최태기 전통 악기장으로부터 기증 받은 산조 가야금〉

가야금은 삼현(三絃 : 가야금 · 거문고 · 향비파) 중의 하나로, 몸통 위에 열두 줄을 얹어 타는 우리나라 고유의 대표적인 현악기(絃樂器)이다. 가야금은 한자 표기이고, '가얏고'가 원래의 이름이다.

이 악기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가야국(伽倻國) 가실왕(嘉實王 : ?~?)이 악사(樂士) 우륵(于勒 : ?~?)에게 명하여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그리고 "가얏고의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가운데가 빈 것은 세상의 공허함을, 줄은 12월을 본뜬 것이다."라고 생김새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한편 가야국이 신라에 의해 멸망하면서, 제작자인 우륵은 이를 신라 진흥왕(眞興王 : 534~576)에게 진상하였다. 가얏고의 은은하면서도 감미로운 선율에 감동한 진흥왕은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 시기에 가얏고가 가야금으로 개칭(改稱)되었다.

가야금은 상판인 오동나무와 하판인 밤나무를 붙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오동나무로 만든 울림통 위에 기러기발 모양의 안족(雁足 : 배나무나 호두나무로 만드는데, 소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을 세우고 그 위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현(絃)을 얹은 다음 머리 쪽에는 담괘라고 하는 것을 두어 줄을 버티고, 고리에는 양이두(羊耳頭 : 가야금 아래 끝에 열두 개의 구멍을 통고 부들을 잡아매는 곳)를 꽂아 줄을 감아 얹어 두었다. 왼손으로 줄을 누르거나 흔들고 오른손으로는 뜯거나 튕기면서 연주할 때의 가야금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섬세한 음색 면에서 가히 일품으로 꼽힌다.

용도에 따라 풍류가야금과 산조가야금 두 종류가 대표적이다. 궁중음악이나 풍류에 사용되는 것을 범금(法琴) 또는 풍류가야금이라 하는데, 가야금의 원형이다. 그리고 민속악에 사용되는 것을 산조가야금이라 하는데, 조선조(朝鮮朝) 중엽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

참고

가야금 · 거문고의 차이점

거문고	가야금
1. 줄이 두껍다.	1. 줄이 얇다.
2. 술대를 이용해서 줄을 뜯는다.	2. 손으로 줄을 뜯는다.
3. 6현(絃)이다.	3. 12현(絃)이다.
4. 남성적인 악기라고 한다.	4. 여성적인 악기라고 한다.
5. 연주할 때 앞면이 보인다.	5. 연주할 때 옆면이 보인다.

복(福) 받을 준비를 해야지…

글 교무부

코너를 시작하며

옛부터 전해오는 민담(民譚)에는 인간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역사, 신앙, 관습, 해학, 교훈, 역경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지혜가 담겨 있으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세계를 은유와 상징으로써 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담이나 여러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 일상생활과 수도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한 2백 년 전,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에 사는 이화선생의 얘기다. 이분한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늘 병치레를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병든 동생만큼 고생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 이화선생의 마누라였다.

"이이구, 언제까지 당신은 글만 읽을 것이오? 글에서 돈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제발 먹을 것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만도 하였다. 한 달에 아홉 끼도 제대로 먹을까 하는 처지였으니 주부로서 오죽 안타깝겠는가!

"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날 때 점지된 것을 이제 와서 어찌할 것인가? 그저 참고 살아 가세나. 이리 고생을 하여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은가?"

"여보,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고생을 하고 살아요? 한때라도 편하게 살아야지요."

"사람이 한때만 살고 말 것인가? 일하면서 오래 살아야지."

"제발 그 분복(分福:타고난 복)이니 분수니, 복을 점지 받았느니 하지 말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그 많이 배운 당신의 재주로 복덩어리를 좀 만들어내봐요!"

"음, 정말 하늘에서 복이나 쌀이 떨어질지도 모르니… 그러면 가마니나 섬, 소쿠리를 준비해 놓구려. 그릇이 있어야 복을 받을 것이 아닌가."

"흥, 정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질 듯이 말하는구려. 정말 진짜 참말같이…"

"자네가 그리 말하면 복을 받을 준비가 없다는 것이구먼, 그만두지 그래!"

"아이구, 내 신세야. 지금 농담을 할 때가 아닌데… 아래 윗동네 다니면서 남의 논밭일 품팔아주고 그리 사는 자기 각시에게 글을 이렇게 많이 배운 도

학군자(道學君子)라는 이가 농담이나 하고 앉았구려! 누구는 당신만큼 안 배우고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만 합니다. 흥, 당신의 공부는, 재주는 도대체 그 무엇이오?"

"다 때가 있지. 나 공부를 좀 덜했구먼!"

"그만둬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복을 받세. 내일일랑은 집안 청소를 잘해두라고. 그리고 기다려 보라고!"

"미안해요. 제가 말을 거칠게 해서… 그래요, 청소하고 목욕하고 기다릴께요."

그리고는 그렇게 했다. 한밤중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려나? 쌀이 쏟아지려나? 기다려 보자. 자정 무렵, "후두둑! 후두둑!" 하늘에서 곡식이 마당에 떨어졌다.

아내는 얼마나 기쁜지 마당에 나가서 비같이 오는 곡식을 손바닥에 받고서 춤을 추었다.

"아, 우리도 이제 복을 받는구나.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밤새도록 내린다면 우리도 부자가 되고 근동 이웃 사람도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좋아했다. 그러다가,

"아차,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곡식도 퍼 담아야 내 양식이지 어서 주워 담자!"

그러나 받아둘 그릇이 없었다. 고작 소쿠리, 바구니, 바가지, 키, 됫박, 구멍 뚫린 멍석, 엉성한 섬 이런 것뿐이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없이 살아도 그릇이 큼직하면 좋으련만, 곡식을 받아놓을 그릇이 변변치 않았다.

"뭐 내일 큼직한 섬이며 가마니며 곡식 받을 그릇을 만들어서 받지 뭐. 오늘 저녁은 있는 것에만 담아두지 뭐."

이러는 가운데 '꼬끼오' 하고 닭이 울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리던 곡식이 뚝 끊어졌다.

"아니,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 불러서 곡식을 주려는데 왜 안 내려오지? 왜 그치지? 고작 쌀 한 섬도 못 건졌는데…"

부인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남편의 말을 우습게 알고 복받을 준비를 제대로 해놓은 게 없으니 남편을 원망할 형편이 아니었다.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복이 무한정 오는 것이 아니거늘. 다 복받을 때가 있는데 준비를 못해 두어서 받지 못하는구나. 하늘에서 그 많은 곡식이 내렸건만 나는 준비를 못해서 고작 한 섬 곡식만 건지고 말았구나! 이제 후회해도 늦었다. 분복은, 내 분수는 분명 많게 크게 있는데 평소에 준비를 안 해 두어서 가난하게 사는구나. 다 내 잘못이다."

흔히 사람들은 타고난 복이 있다고 하지만 복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따라 만들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다. 옛말에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하였듯이 나의 복도 마찬가지로 먼저 고생을 잘 참고 견뎌낸 후에야 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인들은 『典經』에 '복록(福祿) 성 · 경 · 신(誠 · 敬 · 信)'이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신조(信條)로서 삼요체(三要諦)인 성 · 경 · 신으로 수도를 해나가야 자신의 복록(福祿)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최래옥 지음,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 2권』, 미래투자연구소, 1993, pp.216-219.

대형사진



성산 방면 교령 **김종봉**
〈만 족〉

『대순회보』 83호에 이어 춘계대순한마당 사진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추계대순한마당 사진전에도 수도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홍보팀-



지양29 방면 정무 **이형심**
〈아버지와 아들〉



진주3 방면 교무 **전현숙**
〈정글링에 오르다〉



신암7 방면 평도인 **전정달**
〈화무십일홍〉



원평15 방면 평도인 **김한섭**
〈고종과 명성황후 친영례의식〉

소형사진



원평34 방면 교정 **김은경**
〈어느 암자 담장넘어서〉

고성2 방면 보정 **이미영**
〈다정한 오리〉





자양16 방면 정무 **왕수만**
〈아름다운 동행〉



칠곡 방면 선감 **최창종**
〈여 심〉



원평36 방면 보정 **김영진**
〈똑같이 흉내내기〉

가화(家和)를 그리며…

양산3 방면 교정 **윤남주**

저는 어릴 때부터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리라는 갈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께서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었고, 하느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진정인 것 같아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청천벽력같이 제 아이가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저는 아이가 좋아진다는 그 말만 믿고 입도치성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다녀서인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에 마음을 둘 수 없어서 일단은 속는 셈 치고 한 달 동안만 꾸준히 기도를 드려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화려한 보석이 많은 궁궐이 보이며 그곳에서 멋진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태을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여기야말로 진정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다잡아 정신을 차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이만을 위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정성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들인지 1년, 이번에도 꿈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상께서 나타나셔서 절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지 일주일 후, 이게 웬일일까요? 불안하고 산만하던 제 아이가 가만히 앉아 공부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마하며 제 귀를 의심했지만 정말 차분하게 안정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이것이 상제님의 덕화구나 싶어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저는 마음 속 깊이 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포덕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호, 2호 포덕이 되어 나가던 어느 날 입도를 시킨 아이 엄마와 저는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주머니의 아이 역시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상태여서 걸음조차도 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제 경험담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도를 믿고 상제님께 진심으로 정성을 지극하게 올려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오랜 괴로움에 시달려온지라 제 말을 철떡 같이 믿고 1년을 하루같이 정성을 드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이 아주머니의 마음도 얼마나 절실했던지 정성을 들인지 1년이 지나자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하며 말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감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면 절대로 느껴보지 못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제가 대순진리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순진리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회에서 떠도는 나쁜 소문만을 접한 가족들이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의 이야기에 설득당하시지 않으려고 대화도 거부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도를 버릴 수는 없었고 다만 저는 시간을 두고 가족을 설득하기로 마음먹고는 더욱 수도에 매진했습니다.

도를 향한 저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서였을까요? 저로 인해 걱정하는 식구들 생각에 마음 아파하던 어느 날 저의 꿈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머지않아 가화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수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겁액 때문인지 특별한 병명이 없이 다리가 아파 포덕을 다니기가 힘들게 되어 도장에 수호를 서게 되었습니다. 도장에 들어오는 것도 조상공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열심히 수호를 섰습니다. 그러던 중 공부자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공부라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정성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주문을 한 자라도 틀릴까 노심초사하며, 행여나 제가 마음을 잘못먹지나 않았나 반성에 반성을 하고서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제 모습에 신명께서 감동을 받으신 걸까요?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제 다리가 너무 좋아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더욱 양위 상제님과 도전님의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도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수도를 잘해서 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선각분들의 은혜에도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한 글로나마 수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솥

잠실10 방면 선무 **곽태우**

개태사 주방 천년을 지켜온 물씨
천 인분 솥에 물이 올랐다
물 밑 아래 쌀알들
잠을 잔다

잠잠하던 어둠 속 쌀들이 튀어 다니고
곪히고 할퀴어 언제 밥이 되려는지
쌀들은 더 난리들이다

바닥부터 올라오는 열기에
고개 숙였던 흰 알들 다시 한 번
튀어 오르고는
서서히 손을 내민다.

반짝거리는 머리들 뒤엉키고
열기의 고통을 서로 갈이
끌어안으려 할 때쯤이면
솥에 뚜껑이 열린다.
상생의 열매가 익어간다

인생과 뜻

잠실23 방면 교정 **김창훈**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춘기 때부터 미래와 인생을 생각하며 내게 던진 질문이다. 이왕 한평생을 산다면 뜻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돈, 권력, 명예가 아닌 진정한 뜻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찾은 뜻은 한의사의 길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쓴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즘 힘들어 하는 도인들이 많다. 같이 도를 닦아왔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져 서로 힘들 때 격려해주며 같이 보내온 시간들이 많이 생각난다. 후각들 중에도 힘들어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고민을 풀어주려고 서로 얘기를 하다보니 느낀 것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귀중한 자신의 인생과 청춘을 도에 쓰고 있으면서 왜 도를 닦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점이다. 나는 이런 후각들에게 항상 해 주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인생」과 「뜻」이다.

이왕 인생을 산다면 나중에 후회가 없게 살아야 한다. '무한유사지불명(無恨有司之不明)' 처럼 말이다. 설사 도를 닦지 않고 사회에서 산다고 해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고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 볼 때 웃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도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차라리 도를 닦지 않는다면 사회에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뜻있는 삶을 생각한다면 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후각들에게 이왕 도를 닦는다면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한다. 수도도 대충하고 사회생활도 대충할 바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낫다고. 지금 사회에 나간다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얘기해 주며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얘기해 준다. 그 시간을 도에 쓰고 있는데 아깝지 않냐고 말이다. 후천에 넘어가서 해원하라는 말과 고3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자주 한다. 고3 때 유혹을 이기지 못해 놀면, 놀면서도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대학가면 후회가 남아서 놀아도 즐겁지가 못하다고 말이다.

요즘 회사가 끝나고 저녁쯤 되어서 연락소에 와서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식사준비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왕 매일 준비해야 하는 식사라면 제대로 만들고 싶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의 음덕을 생각하며 회사에서 짬짬이 요리책을 보고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요령을 배웠다. 그래서 지금은 식사 준비 때마다 이왕 만드는 거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내 자신도 남이 잘 먹어주면 즐거운 일이고 남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지 않겠는가? 가끔씩 부모님 댁에 가서 찌개라도 끓여드리면 어머니가 대견해 하시곤 했다. 요즘 나는 식사준비로 수도를 하고 있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뜻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친 풍랑을 만난 배가 정면 돌파해서 헤쳐 나가듯, 힘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힘들어 하는 후각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의 뜻부터 세우는 일인 것 같다. 그래야 앞으로의 고된 수도가 자신에게 약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금 교정으로써 수도하고 있지만 나 자신이 완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완벽해지려고 먼저 발버둥을 치면서 느껴온 것이 있기에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나에게 힘든 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바다 속에서도 등대처럼 빛을 밝혀주는 뜻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운수마당에 가서 인생의 뜻을 이룰 것이다. 진정한 인생의 뜻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쳤던 관운장 신명을 생각하며 내일도 열심히 수도할 것이다.

독자사연 讀者事緣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대순회보』에 우편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항상 『대순회보』를 읽고 정보만 받다가 나도 한 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자는 생각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순회보』를 보면 늘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늦은 사연을 보내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숨쉴 공간을 찾아 휴식을 취할 때면 『대순회보』를 펼칩니다. 눈이 즐겁고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 좋은 정보가 많아서 즐겨 읽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기사를 접하고 있으면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듯 상쾌한 기분이 들거든요.

『대순회보』에서 전해주는 많은 사연과 정보를 남들에게 전해줄 때에는 기쁨이 두 배로 커지는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순회보』 편집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반 고흐를 비롯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와 부모님, 가족에 대한 훈훈하고 따뜻한 내용이 많아졌으면 하네요.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은 『대순회보』가 더욱 많은 발전을 해서 알찬 정보를 제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편집팀, 『대순회보』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수 방면 평도인 **정채희**

〈심 상〉

마음씨가 모든 운을 지배하기 때문에 운의 근본이 되어 마음씨가 고와야 운이 열린다.
얼굴이 차분하고 무게가 있어 보이면 운이 열린다.
마음씨가 깨끗하면 눈이 맑고 잠자는 시간이 짧으며
마음이 혼탁하면 눈이 흐리고 잠자는 시간이 길다.
상대의 허물을 탓하기 보다는 이해할 줄 알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성격이 침착하고 표정이 명랑하며 자세가 엄숙하면 행복과 안락을 누린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것은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운이 다시 열린다.
낯빛을 자주 바꾸고 성질을 자주 부리면 운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태연하면 운이 열려 복이 많아진다.
한숨을 자주 쉬면 신상이 곤고해진다.
성질이 지나치게 급하여 참을성이 없으면
주위의 평판이 좋지 못하여 실패가 많다.
자신의 실패담을 서슴없이 털어놓는 여유 있는 마음이라야 운이 열린다.
곤경에 처해 있는 데도 수심보다는 오히려 온화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도량이 넓어서 곤경을 빨리 헤치고 다시 피어난다.
일이 잘 되는 때에 자만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자존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고성2 방면 선사 **정임진**

캠프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과 열정이 날아오르다!

글 **기획부**



그들은 수도인의 자세로 타인과 화합하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음덕이 중요하듯 많은 일의 성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동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캠프운영진들!

캠프를 운영해 가는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청소년 지도자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지도자와 구분되는 독특하고 전문적인 지도영역이 있다. 다양한 특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지도, 상담하고 요구와 발달과정 및 성격 등을 진단, 분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외에도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가는 사람들이다.

대순학생회 캠프 시스템 또한 그와 흡사하나 몇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있다. 세트장을 구성하는 인테리어에서부터 기획하고, 연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영상촬영과 편집을 하기도 한다. 요즘 청소년들의 소통수단이 홈페이지를 통한 미디어화가 되어가면서 그와 관련된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체험들을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 빨리 익히고, 금방 싫증을 내버린다. 그런 학생들에게 신선함과 다양성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려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점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배움에 힘쓰고 있다.

운영진들은 2008년 여름캠프를 준비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유성지구 청소년 수련원 캠프에 참여 했다. 또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해야 하는 특별공연과 아침체조 및 레크댄스 교육의 지도를 위해서 여주생활체육지도자에게 교육도 받고 있다. 이렇듯 종단 기획부의 고유 업무 외에도 시간을 내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관심과 대화가 필요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주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열리는 상담교육도 받고, 이번에는 'MBTI 성격유형'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誠 · 敬 · 信의 마음을 키워가는 지도교사들!

캠프 지도교사들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과의 생활 속에서 솔선수범으로 실천교육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지도하며 변화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변화를 보며 지도의 성공을 확인하고 이후에 지도방법을 어떻게 수정 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 더불어 학생들이 캠프에 거듭 참여하면서 청소년기의 급 변화 하는 모습과 지도자를 비롯한 기성세대에 도전적,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결국 캠프 지도교사들에게 있어 청소년들을 지도해 간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충족해주는 전문 인력은 많지 않다. 캠프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각 방면에서 사업을 통해 성 · 경 · 신을 다져온 수도인들이다. 그리고 방면에서 성실히 임해오는 수도인들이 2달여간 진행되는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청소년 지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처 능력을 익히게 된다.

지도교사들이 이수 하는 연수는 수도의 연장선으로 느껴질 만큼 힘들다. 자기와 다른 상황의 청소년들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 그 소통의 방법을 다양하게 익히는 것은 늘 수도하는 자세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동안 캠프를 참여한 많은 지도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캠프교사의 역할 수행도 수도의 일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는 말이다.

지도교사들이 연수를 통해서 이론 적으로 배운 것을 캠프기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체득해 간다. 한 마음을 먹고 변함없이 실천하려는 끈기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며 수도인의 일심을 느낄 수 있다.





여주본부도장의 '도깨비 방망이' 총무부

캠프팀에는 도깨비가 산다. 무대 나와라 뚝딱! 하면 어느새 현란한 조명이 함께 하는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이불 나와라 뚝딱 하면! 천이백여 명의 학생들이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이불이 마련된다. 이렇듯 총무부는 캠프를 운영해 가는 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이다.

다가오는 캠프에도 야외 활동 체험을 위해 학생들을 이동해 줄 버스를 준비하고, 간식으로 피자를 직접 만들 것이다. 또 캠프가 시작되면 다양한 역할로 도움을 주게 된다. 농가체험에서는 훌륭한 체험 지도교사로, 등산 할 때나 수영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역할이 된다. 그러다 아픈 학생이 생기면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해 주고, 저녁이면 캠프파이어를 준비해 멋진 이벤트로 승화시켜 준다.

그들은 진정한 수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나' 며 미소 띤 그들의 손에는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다.

캠프의 '엄마손' 부녀회



여름캠프를 준비하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음식과 잠자리이다. 캠프식단은 웰빙 음식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식당의 청결과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지만 엄마의 밥상을 느끼게 만드는 부녀회의 정성에는 못 따라올 것이다. 음식을 조리하는 재료는 직접 시장에서 구입하고, 또는 방면에서 정성으로 보내주시는 그 지역 특산물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은 화학조미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식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캠프기간 사용하는 이불의 숫자만 해도 200여장 된다. 천이백여 명의 학생이 한 달 동안 사용을 하고나면 이불은 꼬질꼬질한 향기와 함께 엉망이 되어있다. 그것을 모두 손세탁으로 하얗고 뽀송뽀송하게 바꿔준다. 대순학생회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성 속에서 2박 3일을 무사히 보내고 간다.

그 외에 수호팀에서 학생들이 잠자는 동안 안전을 위해서 불침번을 서고, 홍보팀에서는 모든 활동을 생동감 있게 촬영하여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 준다. 이렇듯 캠프가 무사히 치러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상제님의 덕화 속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정성과 열정으로 작품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융화단결로 한 단계씩 성장해 가는 대순학생회가 될 것이다.

포스트모던과 신종교

– 한국신종교학회 춘계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잠실25 방면 평도인 **김의성(대진연합회 학술부장)**

저는 현재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에 편입해서 공부하고 있다. 어느 날 학과 사무실 앞 게시판을 보니 한국신종교학회에서 학술발표회의를 한다는 공문이 붙어 있었다. 우선, 대순종학과 이경원 교수님이 사회를 보신다고 되어 있어 관심이 갔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포스트모던과 신종교'라는 주제였다.

뭔가 우리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다. 학술발표를 들어보니 그런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여러 대학교 교수님들과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셨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날 행사는 카톨릭대학교 교수님과 동서대학교 교수님이 주제발표를 맡으셨는데 각각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종교형태', '패전 후 일본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다.(지금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는 포스트모던이라는 소재를 끄집어낸 데에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말 속에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각각의 발표 후에 다른 교수님의 짧은 논평이 이어졌고 논평에서 나온 의문점이나 요구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 들을 수 있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도 받았는데 외국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는 열정적인 학생의 질문이 인상적이었고, 때론 재밌는 분위기도 연출되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님의 경험담이었다. 북경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일본인 학생이 교수님에게 비밀스럽게 자신의 홈페이지를 보여주었단다. 그런데 학생은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의 대상을 끌어다가 놓고 위패를 모셔다 놓음으로써 나름대로 자신만의 종교적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 위패들 중에는 교수님이 죽으면 모셔질 공간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려 했던 사람들 50여 명이 발각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예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사이트에 영정을 모셔놓고 일반인들에게 추모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의 의미는 정보화시대에 나 자신은 세계 어디서든지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정보를 끌어올 수 있다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나는 정보를 발신함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성직자가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으로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실제로 원불교 교단에서는 사이버 야바타 전도인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상에서는 교류도 자유롭다. 한 교단 내에서는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종교인의 입장이, 인터넷상에서는 모르는 대상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북경대학교 교수님의 얘기였다. 나는 일면 공감했다. 지금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굉장히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이미 엄청난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너무나 많은 정보에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나 연예인, 영화나 드라마의 가치가 개인에게 종교적 가치 이상으로 다가오는 것과, 현재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통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들을 보여준다. 인터넷 폐인이나 욘사마 어록[01], 빵상아줌마 신드

룸[02] 같은 것이 그 실례이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너무 많은 가치관들로 인해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의 모습 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필자 개인의 문제에 대입시켜 생각해 보았다. 대순진리회 수도인으로서 이런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인가? 방면선감의 교화를 생각해 보았다. 인간은 인간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나 돼지와 다르다는 말씀,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본다. 그리고 이번 학회에 참석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대순진리회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살아간다. 그 누군가가 어디에 속한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번 학회를 참가하면서 해체해야 할 것은 과장된 형식이고,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과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순수한 본질'이 아닐까라는 다소 막연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계속해서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를 가리고 있던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본질로 나아가다 보면 인간 본연의 모습과 만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어떠한 의문이나 괴로움도 없는 그냥 그 상태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01 일본에서 배용준이 한 얘기를 모아서 어록을 만들었다. 배용준이 그들에게는 단순히 연예인 이상의 의미를 주는 것이다. 이는 다소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02 인터넷 상에서 우주선을 만나는 아줌마로 알려져 키다란 신드롬을 일으켰다.

1박 2일간의

의미 있는 수련회 답사

불국4 방면 평도인 **박병노(대진연합회 기획차장)**

6월 3일 ~ 4일, 양일간 교무부가 주관하는 2008년 대학생 하계 수련회를 위한 최종 답사가 있었다. 여기에는 교무부 연구위원들과 함께 대진연합회 운영진 3명이 포함되었다. 대진연합회 운영진이 포함된 이유는 대학생 관련 행사에서 대학생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이다.

6월 3일 아침 6시 모두가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다. 읍배를 드리고 7시경에 출발해서 9시 30분 경 오죽헌(烏竹軒)에 도착했다.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에서 오신 강사분의 교화를 들으면서 오죽헌과 경포대(鏡浦臺)를 둘러보았다.

강사분의 설명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원의 의미였다. "대순(大巡)이 원(圓)이고 원(圓)이 무극(無極)이며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다." 그리고 금강산 연수의 의미와 함께 설악산과 금강산이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다는 말씀도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오죽헌에는 우리 고유의 삼태극(三太極)이 그려진 문이 있다. 빨강과 파랑으로 된 태극(太極) 문양이 아닌 빨강, 노랑, 파랑으로 구성된 삼태극 문양의 의미 역시 신기했다. 불의 상징인 빨강, 물의 상징인 파랑 그리고 땅의 상징 노랑. "물과 불은 같이 공존할 수 없지만 물과 불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땅이다." 라는 강사 분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

오죽헌에 이어 강사분의 인도로 경포대를 둘러보았다. 경포대는 아직 공사 중이었다. 경포대의 아름다운 풍경과 강사분의 설명이 어우러져 일반적인 관람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

다. 경포대를 둘러보고 나서 우리 일행은 점심을 먹고 산행코스인 설악산으로 갔다.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슬비가 와서 비옷을 입고 우리 일행은 곧바로 산행에 들어갔다. 강사분의 설명을 들으니 이곳의 지명이 '도문리'라고 한다.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로 나뉘는데 이곳의 이름이 도문리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산행은 케이블카로 이동 후 권금성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비선대(飛仙臺)를 지나 금강굴(金剛窟)까지 가는 코스였다. 비와 짙은 안개로 인해 주변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이동하는 동안 신기한 것도 많이 봤다. 아기물개를 꼭 닮은 바위와 선녀의 모습을 닮은 바위, 그리고 두꺼비가 앉아 있는 모습을 한 바위까지, 그저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다.

힘들게 오른 금강굴은 너무 아름다웠다. 굴 안쪽에는 불상도 있었고 바깥쪽 벽에는 달마도가 있었다. 정말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지금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든 수직 절벽인 이곳에 그 옛날 어떻게 오고 갔을까? 정말 신선이 되어 날아 다녔을까?

일행들과 함께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의문점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어느덧 산행이 끝이 났다. 안개로 인해 주변의 멋진 경치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산을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곧바로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에 들어갔다.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이 처음인 나는 그곳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금강산이 있고, 왼쪽에는 설악산이 있다. 금강산은 1만 2천 개의 봉우리가 있고 설악산은 1만 2천 개의 폭포와 함께 청봉(靑峰)이 있다. 그리고 금강산은 내금강 · 외금강이 설악산에는 내설악 · 외설악 있다. 금강산과 설악산의 기운이 한 곳에 모이는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에 내가 있고 나는 양 쪽 산의 모든 기운을 한 몸에 받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같이 답사를 한 교무부 연구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답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내일 일정 그리고 수련회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회의를 함으로써 첫날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대진연합회는 수련회의 알정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교무부 연구위원들께서 믿고 맡겨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밀려왔다. 기대와 설렘 그 반대편의 두려움과 염려가 같이 뒤섞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에서 읍배와 도전님 능소(陵所)에 배례를 드림으로써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도장 안쪽의 참배코스와 동선(動線)을 먼저 확인했다. 그리고 각 조별로 겹치지 않게 순환할 수 있는 코스도 서로 의논을 했다. 그렇게 도장의 참배코스가 정리되자 곧바로 다음 행선지인 낙산사(洛山寺)로 향했다.

낙산사는 넓은 바다와 함께 풍경이 아름다웠다. 낙산사는 우리나라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한다. 아직도 화마(火魔)가 곳곳에 남긴 흔적이 역력한 낙산사를 둘러보면서 강사 분께서는 계속해서 낙산사와 불교 그리고 유불선(儒佛仙)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막연하게 느꼈던 유불선 그리고 그것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끝으로 우리 일행은 수련회 마지막을 보낼 숙소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루 동안 지낼 숙소와 장기자랑의 무대를 둘러봤다. 음향과 조명, 동선과 장비시설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야외무대를 기준으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실내무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도 확인했다.

이번 수련회는 대진연합회도 주체로 참석하는 첫 행사이다.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되고 답사기간 동안 더 좋은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위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꼼꼼이 관찰하고 체크했다. 이제 시작이니 만큼 더 좋은 모습과 많은 흥보를 하기 위해 끝까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도 가슴속에서 강하게 몰아쳤다. 숙소를 점검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다시 여주본부도장으로 향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답사를 통해 유불선의 하나 된과 장소 장소마다 새겨놓으신 양위 상제님과 대순진리회를 창도하신 도전님의 뜻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멀게만 느꼈지던 '도(道)'의 진리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앞으로 전개될 수련회가 나를 비롯한 많은 대학생 수도인들이 도에 대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만 학술답사기

해외에서 선보인 우리 기도의식

글 연구위원 **김 대 현**



낯선 이국의 가로수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두 시간 남짓, 비행기는 어느새 타이베이(臺北) 소재 타오웬(桃園)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대만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고 야자수 나뭇잎이 바람을 타고 반갑게 손짓했다. 파란 하늘 아래 낮게 떠다니는 구름은 마치 생애 처음 외국땅을 밟고 들뜬 내 마음만 같았다. 공항에서 나온 우리는 자동차로 대만의 북동쪽에 자리한 이란(宜蘭)이라는 곳을 향했다. 차창 밖으로 낯선 오후의 정경이 스쳐갔다. 그 정경들은 지도 속 글자로 있던 대만이라는 나라에 조금씩 생명의 온기를 불어주는 듯 했다.

이번 대만 방문의 목적은 불광대학교(佛光大學校) 종교학과 류궈웨이(劉國威)교수의 초청으로 5월 9~10일간의 불광대학 비교종교학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6월 '세계종교지도자대회'를 계기로 종단을 방문했던



스쿠터를 타는 대만사람들

류(劉)교수의 은사 류샹쭈우(遊祥州)교수는 우리 도장과 수도인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가장 한국적인 종교의 모습을 우리 종단에서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는 한국 종교를 대표해 먼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이었다.

'종교의례와 치병'이라는 학술대회의 공동 주제를 안고 우리 종단에서는 이경원 교감(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이 '대순진리회의 기도의례의 종교적 상징성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 외에 특별한 이벤트도 하나 있었다. 그것은 논문 발표 후 각국 종교의 의식시연을 가지는 시간으로 우리 종단에서는 한복을 차려 입고 '기도의식'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일행 가운데 필자를 비롯한 세 명이 시연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밀려오는 부담감에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차창 밖 풍경에 어느덧 마음은 다시 호기심으로 차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한 도(道)의 크기이며 인구 2,200만이 사는 작은 섬나라 대만은 전체 지역의 2/3가 산지와 구릉지대로 되어 있고 북쪽은 아열대, 남쪽은 열대지방으로 무더운 곳이다. 산과 나무가 많긴 한데 산세는 험한 편이고 나무들은 열대식물이어서 그런지 우리 한국의 산천초목에서 느끼는 곱고 우아한 자태는 느낄 수 없었다. 더운 기후조건 때문일까, 대만에 대한 인상은 한편으론 여유롭게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정과 생기가 다소 약하게 느껴졌다. 큰 빌딩들을 제외한 다수 건물들과 주택들은 20년 전의 한국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광경은 스쿠터로 가득한 대만의 도로이다.



조용한 이란거리

검소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대만인들의 특성상 스쿠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용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것이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수십 대의 스쿠터가 동시에 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국땅에서의 여러 인상을 기억 속에 남기며 학술대회 기간 동안 묵을 숙소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늦은 저녁 무렵이 되어 잠시 주위를 산책할 기회가 있었다. 대만 북동쪽의 이란은 개발이 덜 된 조용한 곳이었지만 소박하고 포근한 정이 느껴져 좋았다. 거리를 걷는데 여러 가정에서 신을 모시는 붉은 불빛이 보였다. 도교가 민간신앙으로 뿌리 깊게 이어져 온 대만의 종교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먼 이국의 땅,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낯설었지만, 그 속에서도 왠지 사람 사는 냄새는 어디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 안 통해도 손짓과 표정, 인정어린 웃음 한 번으로 마음이 통할 때가 있었다. 그 따뜻한 느낌이 오래도록 잊혀 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라가 달라도 역시 인간은 모두 하나임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대만에서의 첫날, 그 밤이 깊어갔다. 바로 다음 날이면 논문 발표 후 '기도의식' 시연을 해야 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많이 긴장하면 가끔 주문을 잊기도 하는데, 외국의 여러 학자들, 종교인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이불을 뒤척이다가 어느 사이에 잠이 들었다.

좀 덥긴 했지만 바로 가까이 산이 있어 숙소에서 맞은 아침은 싱그럽고 상쾌했다. 조식 후 숙소에서 자동차로 30분 가량 떨어진 불광대학교로 출발했다. 이란 거리를 지나서 외딴 산으로 꼬불꼬불, 불광대학교는 그렇게 산 위에 세워진 학교였다. 경치는 좋았지만 길이 멀어, 산으로 뻗은 도로를 타고 학교까지 등교하는 학생들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옆으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불광대학교(佛光大學校)는 대만의 불교 종단 불광산사(佛光山寺)가 운영하는 종합대학교이다. 설립자인 성운대사(星雲大師)는 도교와 유교의 전통신앙에 밀렸던 대만 불교를 60년 사이 대만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 불교를 이끄는 거목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그는 "교육사업으로 인재를 기르고 문화사업으로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며, 자선구제사업으로 사회복지에 앞장서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의 일환으로 불광대학교를 세웠던 것이다. 신도수 100만에 세계 200개의 분원이 있을 정도로 국내외로 뻗어가는 불광산사의 성장력은 대단했다. 개인수도와 포교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모습에서 우리 종단이 수행과 포덕 그리고 3대중요사업을 조화시켜나가는 모습과 다소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중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세계로 넓게 뻗어가는 친화력과 활력만큼은 배워도 좋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광대학교 본관

불광대학교에 도착한 일행은 마중 나온 학교 안내자들을 따라 발표장으로 들어갔다. 검정색 승복을 입은 한 까까머리 여학생이 쫓아와 웃으며 방명록 작성을 권했다. 방명록 작성 후



불광대학교에서 바라본 수평선



대만 도교 인사들과 함께



이경원 교감 발표모습(좌측 첫 번째)

자료집을 받은 모두는 간단히 다과를 먹고 발표장으로 입장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베트남, 인도, 네팔, 일본 등의 여러 학자들이 이틀간 각자가 준비해 온 연구자료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오전에는 네팔과 일본, 인도에서 온 학자가 발표하기로 했고, 중식 후 이경원 교감의 발표순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의식' 시연은 그날 발표가 끝난 오후 늦게쯤에 있을 예정이었다.

'종교의례와 치병'이라는 공동 주제를 봐도 알 수 있듯 각 학자들의 개별 주제는 각 종교의 종교의례가 환자들에게 미쳤던 실제 사실을 자료로 연구한 것이었다. 그 내용들은 종교의례의 기적적인 현상보다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 의식을 종교를 통해 배워간다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일본 불교의 경우 그런 점과 아울러 장례의식까지 대행하는 점에서 그들의 상업적인 의도도 엿볼 수 있었다.

오전 발표가 다 끝나갈 무렵 조금씩 졸음이 밀려왔다. 양복정장에 넥타이, 비록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었지만 갑갑함은 피할 길 없었던 것이다. 졸음과 싸우던 사이 중식시간이 되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잠시 학교를 둘러보았다. 탁 트인 교정은 깨끗한 느낌이었고 학생들의 모습은 해맑았다. 높은 곳에 위치한 불광대학교에서는 저 멀리 수평선이 내다보였다. 그러다 문득 바다 건너 세상에 내디딘 첫 발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나의 좁은 견문으로 잊혀진 미개척지였고 내 능력은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자각에서였다. 우리 수도에서 넓게 덕을 펼치는 것만큼 큰 것이 없는데 넓은 세상을 두고 자신에게 갇혀 있었다는 실망은 한편 씁쓸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발표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급한 걸음으로 자리를 찾아가 우리 종단 측 이경원 교수의 논문발표를 기다렸다. "대순진리회의 기도의례의 종교적 상징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해외 종교인들과 학자들 앞에서 유일무이한 대순진리회의 기도의례를 소개한다는 사실에서 의미심장함을 느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발표 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질문으로 관심을 표했다. 그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평등사상에 대한 대순사상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내 머리 속은 이미 『전경』 속 상제님 말씀 한 구절을 찾고 있었다.

그 뒤 두 분 학자의 발표로써 그날의 학술발표는 마치고 각 종교의 의식시연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벌써부터 마음은 떨려왔다. 가장 먼저 불광대학교 학생들의 독경 시연이 있었다. 화려한 의례복을 입은 수십 명이 행사장 가득 정렬했다. 그런데 비해 단 세 명, 소박한 한복을 입고 주문을 봉송하는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는 많이 보여줄 것



불광대학교 불교학과 학생들의 독경 시연 모습



역동적인 티벳불교의 시연 장면

이 없었다.

의식시연이 있는 동안 한쪽 빈 방에서 한복을 갈아입는데 주문에 대한 걱정이 다시 엄습해왔다. 많은 외국인이 카메라를 들고 지켜보고 바다 건넌 곳 그 하늘 아래서 돌리는 주문인데 실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은 더해 갔다. 외수 둘, 내수 하나 곱고 소박한 한복으로 단장한 우리 일행은 차분히 순서를 기다렸다.

앞선 시연을 관람하는 중 화려한 몸짓과 의복에서 나오는 색채가 분명 우리 종교의식의 방향과 크게 다름을 느꼈다. 인도와 네팔의 의례는 일종의 예술 공연 같았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부터 시작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덧 우리 순서가 돌아왔다. 준비해 온 향과 향로, 양초와 성냥을 앞에 올리고 그리고 납폐지를 준비해두었다. 많은 이들의 시선이 굵은 소나기 줄기처럼 우리 모두를 적시는 듯 했다. 다들 어떤 의식이 펼쳐질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가득해 보였다.

우리는 양손을 모은 공손한 자세로 향로 앞으로 다가섰다. 공교롭게도 필자가 집사를 보게 돼 앞 쪽에 서고 나머지 두 내 · 외수 분이 양쪽에 자리했다. 이제 의식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머릿속은 텅빈 것처럼 해야 할 순서가 금방금방 떠오르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법배로부터 시작한 배례 모두를 마쳤다. 그리고 납폐지를 태우며 주문을 봉송해갔다.

천천히 주문은 머릿속에서 먼저 메아리처럼 울리고 그 다음 입으로 흘러나왔다. 주문의 다음 글자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지긴 이번이 처음이었다. 주문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갑자기 주위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다. 가만히 앉은 자세, 그 속에서 주문만 봉송하는데 우리 모두의 얼굴과 온 몸에서는 땀이 비오 듯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모두가 놀랐던 점이. 앞선 시연에서는 역동적인 동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땀 흘리는 모습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용기를 얻은 양 모두는 마치는 순간까지 더 정성스럽고 힘 있게 주문소리를 빛어냈다.

기도의식이 끝나자 의식을 관람했던 여러 사람들은 시연과정 흘렸던 그 땀의 의미와 연고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 했고 더불어 신기해하며 질문을 던져왔다. 한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것이 바로 남모르는 우리 공부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다. 결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신도의 법방은 진리와 에너지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은 너무도 편안한 밤일 수밖에 없었다. 나름 큰일을 마무리한 것처럼 가벼운 마음이었다. 가만히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날 꿈속에서 분명 나는, 신선선녀의 모습으로 주문을 외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았다.



기도의식 시연 모습

발효과학의 결정체

김치

글 교무부



농번기가 한창인 이 무렵, 한낮의 땡볕에서 일을 하는 농군들이 참시나마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청한다. 어느새 도착한 새참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단숨에 들이키고, 묵은 김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으면 갈증과 피로가 단숨에 사라진다. 더욱이 햇빛이 강한 오후에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을 때, 깊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 열무김치를 살얼음 되게 살짝 얼려 여기에다 국수를 말아먹으면 땡볕에 그을린 입맛 걱정은 끝이다. 이렇게 김치는 우리 삶과 결코 뗄 수 없는 사이인 듯하다. 오죽하면 김치 없이는 정말 못산다는 노랫말까지 있으니 말이다.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인 발효 식품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김치, 더 놀라운 것은 세계 5대 식품(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리스의 요구르트, 인도의 렌틸콩, 일본의 콩식품, 우리나라의 김치)으로 선정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음식인 김치, 그 김치 속의 숨은 발효과학 이야기에 접근해보자.

끊임없이 변화해 온 김치 01



▲ 고려시대 김치 - 풀무원 김치박물관 제공

김치는 우리 민족에게 밥만큼이나 중요한 음식이다. 예로부터 김치는 조상들이 겨울에 채소를 오래 보관해 두고 먹기 위해 만든 음식이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김치란 말이 생기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상고시대 김치류를 총칭하는 고유의 옛말은 '지'였다. 예전 김치를 짠지 · 묵은지 할 때의 지가 그것이다. 그 지가 한자가 들어오면서 '침채(沈菜)' · '팀채'가 되고, 다시 '딤채'로 발음 되었고, 이 딤채는 오늘날의 '김치'가 되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어떤 김치를 먹었을까. 『삼국사기』에 신라(新羅) 신문왕이 683년 왕비를 맞이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중 장아찌나 짠지처럼 소금에 절인 단순한 초기 김치류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리고 고려(高麗)의 문인 이규보가 지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는 "순무를 장에 넣으면 여름철에 먹기 좋고, 청염(알이 굵고 거친 천일염)에 절이면 겨우내 먹을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청염에 절인 순무란 동치미와 같은 형태로, 숙성과정에서 생성된 독특한 국물이 무와 곁들여지는 김치류이다. 이러한 장아찌 · 짠지 · 순무 등과 같은 단순한 김치류가 조선 초까지 유래되었다.

하지만 조선(朝鮮) 중기에 고추가 들어오면서 김치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껏 김치에 젓갈만 넣으면 상해서 비린내가 날 수도 있는데, 고추를 함께 넣으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요리법의 변화를 주면서 김치의 가짓수도 끝없이 늘어

01 풀무원 김치박물관 자료실(http://www.kimchimuseum.co.kr) / 유애령, 『식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교보문고, 1997, 참조.



◀ 김치 만드는 과정 – 풀무원 김치박물관 제공

났고, 계절 따라 고장 따라 여러 가지 김치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순무 대신 댓무가 쓰였고, 배추가 주재료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단순한 절임식의 김치에 고추 · 파 · 마늘 · 생강과 같은 양념과 젓갈 · 해산물을 함께 버무려 담금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김치의 모양이 갖추어져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전승되었다.

김치 속의 발효과학 02

김치는 자연발효를 통한 독특한 감칠맛과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효능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발효과학의 결정체라 불릴 정도로 웰빙 음식의 대표주자로 각광 받고 있다. 그렇다면 김치 속의 발효과학이란 어떤 것일까?

김치를 담그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재료인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는 것이다. 여기에 삼투압(滲透壓)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삼투는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막아놓을 때 농도가 낮은 쪽의 액체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평형이 이뤄지는 현상이다. 즉 채소를 고농도의 용액인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채소조직 속의 수분이 빠져 나옴으로써 활성 세포들의 숨이 죽는다. 이 때문에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을 '배추의 숨을 죽인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배추김치 : 풀무원 김치박물관 제공

채소의 숨이 죽으면 배추에 간이 배어든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다량의 젖산균이 생성된다. 이를 젖산발효 또는 유산발효라고 한다. 젖산은 부패 변질을 초래하는 다른 유해한 잡균의 발육을 억제하며, 김치의 독특한 향미를 만들어낸다. 이때 유해한 세균을 죽이는 유산균이 바로 '루코노스톡 김치 아이' 이다. 우리나라 김치에만 들어있는 유산균으로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을 억제하고, 위염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를 억제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김치의 발효 과정을 도와주는 숨은 공신을 말하라면 단연 젓갈과 고추를 손꼽을 수 있다. 젓갈은 김치의 숙성을 촉진시키고 특유의 감칠맛을 낸다. 고추는 김치가 쉽게 물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백김치가 일반 김치보다 잘 물러지는 이유다.

한편 우리 조상들이 김치를 저장하는데 이용한 옹기도 김치의 발효를 돕는다. 옹기 파편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숨구멍이 있는데, 공기는 투과되면서 물은 투과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외부의 맑은 산소를 옹기 내의 내용물에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안과 밖의 공기를 잘 통하게 해서 음식의 신선도를 오랫 동안 유지하면서 천천히 발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학반응 덕분에 비타민과 유기산 등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따라서 김치는 배추와 양념이 단순하게 버무려진 음식이 아닌,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복합적인 발효 반응이 일어나는 과학적 음식이다.

02 『과학동아』, 2002년 12월호 참조



▲ 배추 물김치 - 풀무원 김치박물관 제공

김치의 숨은 힘 [03]

최근 미국 건강전문 월간지 『헬스』는 김치에 대해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유산균이 요구르트에 비해 더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으며, 섬유질이 많은 저지방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치에 들어 있는 고추의 매운 성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몇 해 전, 일본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은 적이 있었다. 그 기능성 식품의 재료가 바로 김치였다. 그리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과 숙성 과정에서 채소의 맹독 성분이 제거된다고 한다. 소금 자체의 세정능력과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이한 화학적 변화가 잔류농약을 소멸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치가 항암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김치의 주재료로 이용되는 배추 등의 채소는 대장암을 예방해 주고, 김치의 재료로 꼭 들어가는 마늘은 위암을 예방해 준다. 뿐만 아니라 김치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 폐암을 예방하고, 고추의 매운 성분이 폐 표면에 붙어 있는 니코틴을 제거해 주기도 한다. 이와 함께 김치 추출물은 인체 암세포의 증식률을 50% 줄이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한국의 김치가 다시금 전세계에 조명을 받게 된 것은 몇 년 전 아시아를 강타한 사스(SAR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이었다. 같은 아시아권임에도 한국에선 단 한 명의 사스 환자도 발생하지 않자,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한국에 일곱 번 사스가 들어오긴 했는데, 단 한 번도 전염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의 매운 음식인 김치에 사스 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김치가 조류독감을 일정한 부분 억제를 시켰다는 것,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숙성 과정에 생성된 유산균(젖산균)이 장을 깨끗이 하는 정장작용을 한다는 것, 혈중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각종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이 입증되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발효 음식인 김치. 이렇듯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김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건강 면에서도 뛰어난 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정작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잊고 살아가는 듯하다. 오늘 저녁이라도 식탁에 국수에다 살짝 얼려둔 열무김치를 넣고, 함아리에서 막 꺼낸 묵은 김치에 두툼하게 삶은 삼겹살을 얹어 먹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03 MBC다큐멘터리 3부작 『꼼팡이』 『발효가 사람을 살린다』편, 2005년 3월 방영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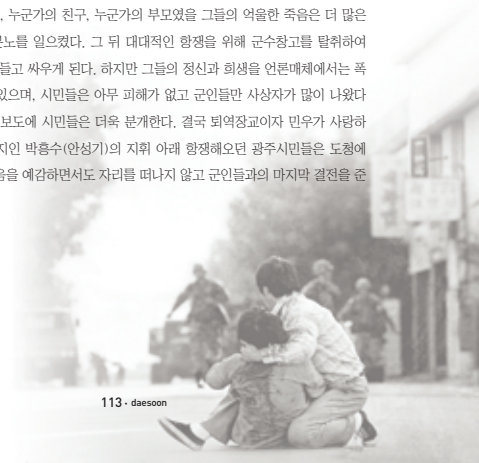
글 **교무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全斗煥) 퇴진, 김대중(金大中) 석방 등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이 민주화운동을 5.18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 한다. 지금까지 이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하여 '꽃잎', '박하사탕', '모래시계' 등의 작품들이 있었으나, 영화 '화려한 휴가'처럼 그것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은 없었다. 그 당시 나라와 민중을 지키기 위해 총, 칼을 들어야만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그린 영화가 바로 '화려한 휴가'이다. 이제 그들의 평생 잊지 못할 처절했던 기억을 영화를 통해 들여다보자.

1980년 5월, 광주에서 택시기사를 하는 강민우(김상경)는 학교에서 매번 1등을 차지하는 모범생 강진우(이준기)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그러다 민우는 진우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간호사 박신애(이요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민우의 모습은 풋풋하고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다가온다.

그러던 어느 날, 광주에 시위하는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가 들이닥친다. 처음에 학생들만을 진압하던 군인들이 어느 순간 거리에 있던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연행하게 된다. 이 와중에 진우의 친구와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게 되고, 이에 분개한 진우와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무차별 진압과 폭력, 그리고 군부독재에 반대하여 시위에 가담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인들이 물러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 하지만 애국가가 울려퍼지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던 중 군인들은 애국가의 소리에 맞춰 시민들을 향해 총탄을 날리기 시작한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사태는 점점 극에 달하게 된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부모였을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더 많은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 뒤 대대적인 항쟁을 위해 군수창고를 탈취하여 결국 같이 총을 들고 싸우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과 희생을 언론매체에서는 폭도로 매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아무 피해가 없고 군인들만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고 전하는 거짓 보도에 시민들은 더욱 분개한다. 결국 퇴역장교이자 민우가 사랑하는 신애의 아버지인 박흥수(안성기)의 지휘 아래 항쟁해오던 광주시민들은 도청에 모여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군인들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한다.








화려한 휴가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당시 실제와 같은 소품과 세트까지 제작하여 1980년대를 현재로 옮겨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름도 존재도 사라져 버린 실존인물들을 모티브로 하여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평범한 광주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감독의 의도대로 처절하고 치열했던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의 사연을 영화에 담아낸 것이다. 민주실현이라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투쟁했던 광주 시민. 하지만 그들의 진실과 이를 위한 희생은 위정자들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왜곡되어 세상에는 폭도로만 알려진다. 영화 끝에 그들의 억울함과 대의를 위한 의지를 토해내듯 민우는 "우리는 폭도가 아니야"라고 외친다.

실제로 신군부는 언론매체까지 통제하여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 혹은 폭도로 보도하게 하였다. 당시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는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공동 사직서' (1980.5.20)의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라는 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말로 시민들을 현혹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광주시민들에게는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진실왜곡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희생은 결국 전국적인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되어 지금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원동력은 1980년의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되게 하였고, 광주시민을 탄압한 주역들은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12.17) 등이 제정되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으며 그 자격을 박탈하기에 이른다.

이는 『대순지침』에 "있는 말로 일을 꾸미면 천하가 부수려 해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일을 꾸미면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나니라"는 말씀을 되새겨보게 한다. 그리고 군부독재를 감행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위해 죄 없는 광주시민에게 가한 무차별 탄압은 결국 "삿된 방법을 감행하는 것은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기(正氣)는 물러가고 사기(邪氣)가 선동하여 허령(虛靈)이 된다"라는 『대순지침』의 내용처럼 그들 또한 욕심을 품고 사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 영화에서 힘없고 평범한 민초들이지만 무차별 탄압에도 대의를 향해 꺾이지 않고 보여 준 의기와 희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다.

영화정보



- 감독: 김지훈
- 출연: 안성기(박흥수), 김상경(강민우), 이요원(박신애), 이준기(강진우)
- 상영시간: 118분
- 제작국: 한국
- 제작사: 기획시대
- 개봉: 2007.07.25

자유와 우연의 세계를 말하는 비·결·정·론

글 교무부

비결정론(非決定論, indeterminism)이란, 세계의 우연성과 인간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고 모든 현상과 인간의 심적 변화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철학 내지는 신학 이론이다. 결정론에서 자유와 우연성이 배제되고 세계와 인간이 정해진 법칙대로만 필연적으로 변화해간다는 이론과 비교해 볼 때 반대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비결정론이 결정론을 반박하는 내용은 자연과학이나 사회 · 역사분야에서 구체적인 예로 찾을 수 있겠다. 자연과학에서는 생물학의 진화론에서 생물진화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할 때 단지 그 방향이 어느 정도의 경향성만을 띨 뿐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태로 전개해간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물리계의 물리량 측정에서 그 값을 확률적으로 산출하는 점도 비결정론의 예로 들고 있다. 사회 · 역사분야에서는 사회와 역사의 변화가 완전히 정해져 있다고 보기 힘든 이유를 마르크스주의에서 찾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같이 변수를 낳는 요소를 무시하고 단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이론도 타당성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이 그것이다.

결정론을 반박하는 견해 속에서 결정론에서 부정했던 '신과 인간의 자유 그리고 자연현상의 우연성'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신의 자유란 세계에 적용되는 진리가 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중세 스콜라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정론적 입장에 반대한 둔스 스코투스나 오컴에 의해 대두되었다. 그 후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와 셸링이 그러한 주장을 펼쳤다. 인간의 자유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루터의 예정설을 비판한 에라스무스가 초기 이론가였다. 그 후 자연의 변화를 우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보하고자 한 칸트나 부트루, 베르그송이 대표적인 학자들로 손꼽힌다.

지난번 결정론을 다루며 결정론의 '법칙성과 필연성'을 대순사상의 '생장염장의 정해진 도수'와 비교하며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공통점도 대순사상의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점이다. 포괄적인 대순사상의 특성상 모순되는 두 개념인 결정론과 비결정론도 대순사상은 동시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결정론의 법칙적인 속성과 비결정론의 자유의 속성을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결정론의 자유의 속성은 『천경』 교법 2장 56절에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라는 말씀에서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인존사상에서 인간의 심적 의지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인 점에서이다.

결론적으로, 대순사상은 어느 정도 우주가 흘러가는 도수는 인정하면서도 인존시대를 맞아 인간의 자유 의지의 중요성도 동시에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정해진 도수와 인간의 자유의지, 인존시대를 맞은 수도인들의 의지가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천지 만물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앵무새 죽이기

글 **교무부**



하퍼 리 저, 김욱동 옮김
문예출판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TV프로에서, 랩퍼인 크라운 제이가 'A(Atlanta의 A)'를 외치며 반짝반짝하는 반지에 목숨을 걸고 가수 서인영에게 힘합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들의 행동은 어느덧 흑인 문화가 한국에서도 그 자리를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유행하는 힙합 문화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코드로 인식되어 있지만 화려한 흑인문화의 이면에는 그들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흑인노예 무역으로 함축해서 볼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 역사는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의 형태로 사회저변에 깔려있어, 사람과 사람 간의 편견과 무시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앵무새 죽이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종차별과 더 크게는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무시가 사람을 얼마나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향한 스스로의 마음을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작가 하퍼 리(Nelle Haper Lee, 1926~)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작품은 1961년에 출판되어 미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퓰리처상 및 각종 상을 수상했고 여전히 미국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읽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 알라배마 주 내의 메이컴 시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과 타인에 대한 편견을 2가지 사건을 통해 7살 소녀인 스카웃의 관점에서 흡인력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톰 로빈슨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지만 명백한 변호를 통해 초등학생인 스카웃까지도 그가 무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흑인노예제가 뿌리 깊었던 메이컴 사람들은 백인이 흑인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배심원들은 톰 로빈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스카웃의 오빠는 흑인에 대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한 우월의식과 악법에 분노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년 가까이 집안에서만 지내는 백인 부 래들리에 대한 메이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린 시절에 방황한 대가로 엄격한 아버지 슬하에서 집안에 감금된 부 래들리를 두고 마을 사람들이 무수한 괴소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자식과 그 자신을 사회에서 격리시킨 부의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 가족을 두고 만든 사람들의 억측과 힐난은 이들이 다시 한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길까지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 중간 부분에 보면 스카웃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빠인 젬에게 엽총을 사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수렵기간 동안에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어치새와 달리 앵무새는 사람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어치새는 죽여도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정의에 관해 다분히 미국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지만, 앵무새를 톰 로빈슨과 부 래들리와 같이 나와 다른 이웃이라고 본다면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수행하는 수도인으로써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몇 달 전 한국이 다민족 국가임을 받아들이라던 UN의 권고처럼 인종차별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약자에게 차이를 빙자한 차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피부색과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상생의 법리를 실천할 수 있는 한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립니다

대순학생회 2008년 여름캠프 공지사항

※캠프의 모든 일정이 도장에서 이루어지니 방면에서는 학생들의 옷차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핫팬츠, 민소매, 슬리퍼 등 착용불가)

2008년 여름 캠프 초등부 프로그램

시간	첫날	둘째날	셋째날
6:30 ~ 7:00		기상	
7:00 ~ 8:00		읍배, A. 체조 및 청소 / B. 농가체험	
8:00 ~ 9:00		아침식사	
9:00 ~ 10:00		지역문화체험 4 학년: 세종대왕릉 5 학년: 해어림식물원 6 학년: 도자기체험	교화(상황극)
10:00 ~ 11:00			롤링페이퍼, 동영상 조별 그림 그리기
11:00 ~ 12:00			
12:00 ~ 13:00	12시 30분까지 도착	점심식사	
13:00 ~ 14:00	입소식 읍 배	수상 체험 활동	읍배, 사진촬영
14:00 ~ 15:00	만남의 시간 (규칙 및 교화)		(오후 2시) 퇴소식
15:00 ~ 16:00			※ 우천시 프로그램 - 등산 ①우천시 : 만남의 시간 ②폭염시 : 금모래은모래 - 영화상영 - 매직풍선
16:00 ~ 17:00	산악 체험 활동		
17:0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 20:00	조별 CF 발표 레크리에이션	화합의 한마당	
20:00 ~ 21:00			
21:00 ~ 22:00	세면 및 생활점검		
22:00 ~	취 침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소식 시간은 2시입니다. 인솔자는 2시까지 국제회의실로 오십시오.
※초등부는 물놀이 용품(수영복, 수모)과 운동화를 꼭 준비해 주십시오.

2008년 여름 캠프 중등부 프로그램

시간	첫날	둘째날	셋째날
6:30 ~ 7:00		기상	
7:00 ~ 8:00		읍배, A. 체조 및 청소 / B. 농가체험	
8:00 ~ 9:00		아침식사	
9:00 ~ 10:00		공동체의식 함양 활동 (예절,훈회,신조,신념)	교화(상황극)
10:00 ~ 11:00			롤링페이퍼, 동영상 조별 그림 그리기
11:00 ~ 12:00			
12:00 ~ 13:00	12시 30분까지 도착	점심식사(김밥)	점심식사
13:00 ~ 14:00	입소식 읍 배	수상 체험 활동	읍배, 사진촬영
14:00 ~ 15:00	조별 팀웍 강화 활동		(오후 2시) 퇴소식
15:00 ~ 16:00			
16:00 ~ 17:00	상황 체험 활동 (화합판,물폭탄,줄넘기)		※ 우천시 프로그램 - 수상체험 ① 도미노 ② 매직풍선 ③ 청소년 리더십 특강
17:0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0:00	(특강30분) 청소년리더십	화합의 한마당	
20:00 ~ 21:00	조별 CF 발표 레크리에이션		
21:00 ~ 22:00			
22:00 ~ 23:00	세면 및 생활점검		
23:00 ~	취 침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소식 시간은 2시 입니다. 인솔자는 2시까지 국제회의실로 오십시오.
※수상체험으로 인하여 물에 젖을 수 있음으로 여벌의 옷과 신발을 준비해 주십시오.

* 2008년 여름 캠프 고등부 프로그램

시간	첫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6:30 ~ 7:00		기상		
7:00 ~ 8:00		읍배, A. 체조 및 청소 / B. 농가체험		
8:00 ~ 9:00		아침식사		
9:00 ~ 10:00		공동체의식 함양 활동 (예절, 효희,신조, 산넘)	첼린지 체험활동	차량탑승 · 출발 (여주도장 도착)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2시30분까지 도착	점심식사		
13:00 ~ 14:00	입소식 읍 배	산악 체험 활동	수상 체험 활동	읍배, 사진촬영 (오후 2시) 퇴소식
14:00 ~ 15:00	차량탑승 · 출발 (토성도장 도착) 1) 조별 방배치 2) 짐정리			※ 우천시 프로그램 - 잼버리 야영장 (실내체육관) - 영화 상영 - 롤링페이퍼 - 매직풍선 만들기 - 청소년 리더십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0:00	어울림 마당	교화(강사초빙)	화합의 한마당	
20:00 ~ 21:00		상황극		
21:00 ~ 22:00		마무리 교화(단장)		
22:00 ~ 23:00	세면 및 생활점검			
23:00 ~	취 침			

※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퇴소식 시간은 2시 입니다. 인솔자는 2시까지 국제회의실로 오십시오.
※ 모든 일정이 토성수련도장에서 이루어지나 입소식과 퇴소식은 여주본부도장에서 합니다.
※ 여벌의 옷과 신발을 준비해 주십시오.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을 위하여 '대진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란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노인들을 돌보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근무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에 관심 있는 많은 도인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기간** : 항시 접수
- **신청장소** : 여주본부도장 신축회관 법인사무실
- **신청서류** : 교육신청서, 반명함판사진 4매(3cm/4cm),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 **문 의 처** : 법인사무실 T)031-882-6649, 팩스)031-882-6632

※ 각 방면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신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 후원 안내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은 현재 노인복지를 위하여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노인주간보호시설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산북면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밝혀나가는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종단의 임원과 수도인들에게 후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 **접수장소** : 여주본부도장 신축회관1층 법인사무실(기획부 맞은편 우측)
- **문 의 처** : TEL (031)882-6649 FAX (031)882-6632, 내선 570
- **후원신청서** : 각 방면의 공문과 종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모집 공고

교무부에서는 수도인들이 포덕, 교화, 수도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공유하여 대순의 문화를 만들고 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대순회보에 실을 원고를 공모합니다. 수도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수필, 수기, 시, 감상문, 논단, 포토에세이, 독자코너 등
- **보내실 곳** : 여주본부도장 교무부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E-mail : gyomubu@idaesoon.or.kr >

잔여 대순회보 배포

교무부와 도서관 및 일각문 초소에서는 잔여 대순회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수도인들께서는 가져가시기 바라고, 각 방면별 회보 부수에 있어서 부족한 방면은 교무부에 추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순회보 84호 우편엽서

● **4행시 당첨자**

• 자양29 방면 선무 정주영
안: 안심 · 안신 · 경천 · 수도로
심: 심신단련 정일집중하여
안: 안으로는 수신하고 밖으로는 덕화선양에
힘을 다함에
신: 신명과 조화하여 해원상생 지상천국 건
설하세

• 합천5 방면 선무 윤경복
안: 安時不忘危라(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라)
심: 心身을 연마함에 있어서
안: 안으로나 밖으로나 항상 나를 살펴서
신: 辛苦(어려운 일을 당하여 몹시 애씀. 또
는 그 고통)함을 겪더라도 슬기롭게 이겨
내자.



신앙의 대상(信仰의 對象)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종지(宗旨)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
성(誠), 경(敬), 신(信)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세계개벽(世界開闢)

훈회(訓誨)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
3. 척(慽)을 짓지 말라.
4. 은혜(恩惠)를 저버리지 말라.
5. 답을 잘 되게 하라.

수칙(守則)

1. 국법(國法)을 준수(遵守)하며 사회도덕(社會道德)을 존행(遵行)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寄與)하여야 함.
2.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음양합덕(陰陽合德), 만유조화(萬有造化) 자체도덕(大第道德)의 근원(根源)이라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나라에 충성(忠誠)하며, 부부화목(夫婦和睦)하여 평화(平和)로운 가정(家庭)을 이룰 것이며, 존장(尊丈)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휼(愛恤) 지도(指導)하고, 친우간(親友間)에 신의(信義)로써 할 것.
3. 무자기(無自欺)는 도인(道人)의 옥조(玉條)니, 양심(良心)을 속임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言行)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嚴禁)함.
4. 언동(言動)으로써 남의 척(慽)을 짓지 말며, 후의(厚意)로써 남의 호감(好感)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德)을 모름을 괘의(掛意)치 말 것.
5. 일상(日常) 자신(自身)을 반성(反省)하여 과부족(過不足)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대순진리회 연혁(沿革)

구천상제(九天上帝)

- 구천상제께서는 원시의 모든 신성 · 불 · 보살들의 청원으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시다.
-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전북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에 강림하시다.
- 30년 동안 머무시면서 제세대도의 천명과 신교를 인간에게 내리시다.
- 인간이 제세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1864년)에 그 천명과 신교를 거두시다.
- 구천상제께서는 1871년 9월 19일,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씨가에서 인간의 몸을 빌어 강세하시니 존호는 증산(甑山)이시다.
- 상극의 참상을 진단하시고 상생의 영원한 평화세계를 이룩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수행하시고 음양합덕 · 신인조화 · 해원상생 ·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선포하시다.
- 1909년 6월 24일, 40년간에 걸쳐 순회 주유하시며 삼계공사를 마치고 화천하시다.

창도주 조정산(創道主 趙鼎山)

- 1895년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 탄강하시다.
- 1909년 4월 조부전래의 배일사상을 끊으시고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 동지들과 구국운동을 하시다가 도력으로 구국제세할 뜻을 정하시고 입산공부를 하시다.
- 1917년 2월 10일 구천상제의 대순진리에 감오득도하시고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으시다.
- 1917년 4월 9년만에 귀국하시어 전국 각지를 편력, 수도하시다.
- 1925년 4월 전북 구태인 도장현에 도장을 건설, 무극도를 창도하시다.
- 1941년 일제의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하여 종교활동을 중단하시고 전국을 순회 주유하시며 수도하시다.
- 1945년 8월 조국 광복을 맞이하여 종교활동을 부활하시다.
- 1948년 9월 도본부를 부산시에 설치하시다.
- 1957년 11월 각종 수도방법과 의식행사 및 종칙 등을 설립 시행하시다.
- 1958년 3월 6일 유명으로 종통을 도전 박한경에게 전수하고 화천하시다.

도전의 종통계승(都典 宗統繼承)

- 1958년 3월 6일 도주 조정산의 유명에 의하여 종통계승.
- 1969년 6월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중앙본부도장 창건.
- 1972년 3월 대순진리의 포덕 · 교화 · 수도를 종단기본사업으로, 구호자선사업 · 사회복지사업 · 교육사업을 종단운용사업으로 삼음.
- 1976년 4월 대순장학회 발족
- 1984년 2월 학교법인 대진학원 설립
- 1984년 6월 대진고등학교 설립
- 1986년 12월 여주도장 준공
- 1987년 12월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설립
- 1988년 2월 대진여자고등학교 설립
- 1989년 7월 제주수련도장 준공
- 1990년 12월 여주도장 현 본전 준공
- 1992년 3월 대진대학교 개교
- 1992년 7월 포천수도장 준공
- 1992년 12월 대진의료재단 설립
- 1993년 2월 종단본부를 중곡도장에서 여주도장으로 이전
- 1994년 3월 분당 대진고 개교
- 1995년 1월 분당 · 동두천 제생병원 기공식
- 1995년 3월 일산 대진고 · 수서 대진디자인고 개교
- 1996년 2월 금강산 도성수련도장 준공
- 1996년 3월 부산 대진정보통신고 개교
- 1997년 4월 금강산 도성수련도장 휴양소 개관
- 1998년 8월 분당제생병원 개원
- 2000년 10월 고성제생병원 기공식



수서대전고(서울 강남구 소재)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

구제신앙의 종교적 법리로 사회와 민생을 구제하고자 종단의 3대 중요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구호자선사업 불우이웃돕기, 불우아동돕기, 신체장애자돕기, 이재민돕기, 양로원 · 고아원돕기 등 소외된 사람의 구제에 힘쓰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새마을 사업, 지역보호캠페인, 교통질서 및 거리정화 운동, 지역개발사업, 방범활동, 원호성금, 방위성금, 농촌일돕기, 바이보호운동, 노인잔치, 경로사상 선양운동, 청소년 육성회돕기

의료사업 해원상생과 구제창생의 이념을 의료분야에 실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이룩한다.

교육사업 **육영사업**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성실 · 경건 · 신념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장학사업 대순장학회를 발족하여 매년 전 · 후반기에 중 · 고 · 대학생 중 우수 및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지급 금액 : 총 16,805,971,670원